

**제1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신문기사집**

〈2004. 7.11~7.16〉

통 일 부

제1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신문기사집

일 반 기 사

❖ 일반기사	3
❖ 연합뉴스	39
❖ 시 설	101

'6·15 상봉' 정례화 기대

북에 쌀 40만t 지원

5일 시작되는 14차 장관급 회담은 탄핵 사태와 4월 총선 이후 첫 남북 간 고위급 접촉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용천역 폭발사고로 대북 지원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 식량 제공과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적 현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 기대 회담 관계자의 전망이다.

◆용천 참사로 대북지원 탄력= 40만t의 대북 쌀차관 제공은 봄철을 맞아 심각해진 북한의 식량난을 고려한 조치다.

국정원 추산에 따르면 올해 북한은 639만t의 곡물이 필요하지만 생산량은 425만t에 불과해 210여만t이 부족하다. 예년 수준인 쌀 40만t이 남쪽에서 공급되지 않으면 배급 중단 사태가 벌어진다는 우려다.

북측은 지난 2월 서울 회담 때 쌀 제공을 요청하려 했으나 핵 문제와 남북 관계 진전을 둘러싼 입장차로 분위기가 냉랭해지자 그냥 돌아간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용천 참사와 관련, 긴급구호에 필요한 식량 1만t을 요구했다.

정부는 쌀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세우면서 북한의 태도를 고려해 탄

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도 짰다. 전제 조건으로 내세울 수 없지만 이산상봉이나 장성급 회담 개최일자 합의 등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성의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북측이 호응해오면 6월 2일 평양에서 열릴 9차 경협추진위에서 식량차관합의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

6·15에 맞춘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은 3월 말 9차 상봉에 이어 정례화의 틀을 다진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개설 원칙에 합의하고도 설계와 지질조사 수준에서 미처 거리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면회소를 빨리 짓자고 북한에 촉구할 방침이다.

◆개각설에 대북 협상력 약화 우려=대표단 안팎에서는 일각에서 제기한 개각설이 수석대표인 정세현(59)통일부 장관의 입지를 흐트러뜨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온다.

1991년 평양 고위급 회담 때 서울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정원식 총리의 교체설이 흘러나와 북측이 대표단을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진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건강 문제로 물러난 김영성(61) 북측 단장 대신 나온 권호웅(45)내각책임참사가 과거 장관급 회담 수행원 출신이란 점에서 격이 떨어진다는 점도 부담이다. 북측이 심리전 효과를 노려 의도적인 '결레'를 하고 있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

군사분야 이견침에 공동보도문 진통

世界日報

2004. 5. 7 (금)

남북장관급 회담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양측 대표단은 폐막을 하루 앞둔 6일 공동보도문 초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군사분야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진통을 겪었다. <관련기사 5면>

북측은 이날 오전 실무대표 접촉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지를 거듭 요구하면서 남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 다른 사안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군사적 문제로 대립하고 있어 공동보도문 작성까지는 큰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6·15 4주년을 즈음한 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과 원활한 교류협력 방안 등 비군사분야의 남북 현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공감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전날 기초연설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이산가족 상봉행사 문제를 공동보도문 초안에 담아 남측에 제시했다.

평양=공동취재단, 박호근기자

공동보도문안 진통

14차 남북장관급회담 군사문제 사흘째 공방

남북한은 14차 장관급회담 사흘째인 6일 오전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각자가 마련한 공동 보도문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으나 전날 북측이 제기한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와 남측의 장성급회담 5월 개최 제안 등 군사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0여분간 진행된 실무대표 접촉에서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남북교류협력 등 일부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이뤘다. 그러나 군사적 문제에서 팽팽히 맞서 구체적인 논의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과거 대결시대의 '재래식' 메뉴인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할 것을 거듭 요구하면서 남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 다른 사안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측은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는 남북간에 는

의할 사안이 아니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평양 공동취재단
김수정기자 crystal@

내달 이산상봉 접근

南北 장관급회담 막판 진통

제14차 남북 장관급회담 사흘째인 6일 양측은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장성급회담 문제 때문에 막판까지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6·15 남북정상회담 4주년에 맞춰 이산가족상봉행사를 개최하는 데는 의견접근을 이뤘다.

★관련기사 A5면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후 9시15분부터 회담장인 평양 고려호텔에서 수석대표 접촉을 가졌으나 북측이 전날에 이어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를 거듭 요구하는 바람에 20분만에 접촉을 끝냈다.

남측은 "합동군사훈련은 남북간에 논의할 사안이 아니며 이미 개최하기로 약속한 장성급 군사당국자회담의 구체적 일정을 이번 회담에서 합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맞섰다.

이에 따라 남측이 제의한 서울 평양 상주 연락사무소 개설문제 등 남북교류협력 현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회담은 난항을 거듭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실무대표접촉에서는 이산가족상봉행사와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에 원칙적으로 공감을 이뤘다고 정부 회담관계자가 전했다.

/평양=공동취재단·정상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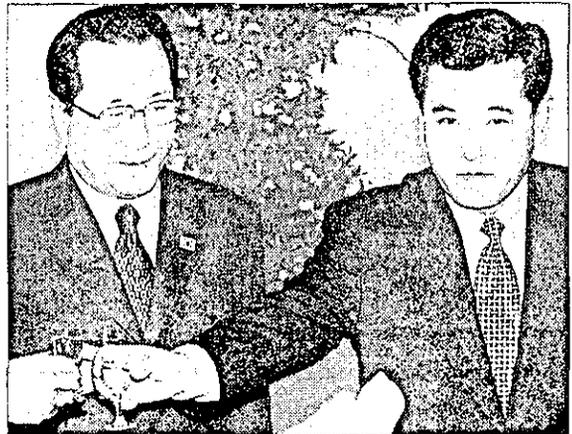
ornot@hk.co.kr

남북 장관급 회담 새벽까지 난항

평양 접촉 사흘째

평양 남북 장관급 회담이 마지막날인 7일 새벽까지도 난항을 겪었다. 북측이 5일 전체회의부터 줄곧 남북 장성급 군사당국자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지를 내세우면서 교착상태가 계속된 것이다. 6일 환송만찬 때 현안 이야기는 거의 없었고, 이어 20분간의 수석대표 단독 접촉이 있었지만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 때문에 장성급 회담에 북측이 호응했을 경우 검토기로 한 대북 식량지원 같은 문제는 논의도 하지 못했다. 6·15 남북 공동선언 4주년에 맞춘 10차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선 원칙적 공감은 이뤄졌으나 합의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북측은 한·미 군사연습을 공동보도문에 담자는 입장이지만 남측은 이 문제는 남북 간에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북한 군부의 강경한 입김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한·미 군사훈련 중지 카드를 고집함으로써 장성급 회담 개최 날짜를 받아가려는 남측 전략에 맞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북측 권호웅(내각 책임참사)단장이 지난 2월 13차 회담 때의 '장성급 회담 조속개최' 합의를 원점으로



6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 회담 환송만찬에서 남측 단장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왼쪽)과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가 건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로 돌려버린 데서도 드러난다. 특히 6일 오전 실무 대표 접촉에서는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면 다른 사안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들고 나왔다. 전날 군사연습 중지와 장성급 회담 개최만 연계시킨 데서 한발 나아가 남북 현안 모두를 얹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되자 "다음번 회담 날짜만 잡고 이대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회담 관계자들의 우려가 나왔다. 그렇지만 양측 모두에 부담이 되는 회담 결렬사태를 피하기 위해 7일 낮 귀환할 예정인 아시아나항공 전세기를 세워두고라도 막판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평양=공동취재단, 이영중 기자

yjlee@joongang.co.kr

'6·15 이산상봉' 의견접근

남북 장관회담...장성급 회담은 이견

14차 남북장관급회담 사흘째인 6일 남북은 실무 및 수석대표 접촉을 갖고 공동보도문 조율작업을 벌였으나 한·미 합동군사연습(이하 합훈) 중단을 공동보도문에 담자는 북측의 주장으로 난항을 겪었다.

남측은 이에 대해 한·미 합훈은 남북간 논의할 사안이 아니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해소를 위해서라도 장성급회담의 개최 일정을 공동보도문에 담자고 주장했다.

남북은 그러나 6·15남북정상회담 4주년에 즈음해 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의견접근을 봤다.

북측이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라는 해묵은 카드를 꺼내들고 이를 회담 막판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은 다목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장성급 회담 개최는 이미 지난번 장관회담에서 원칙적 합의를 본 사안이다. 북측은 남측이 제기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측의 성실한 노력 요구를 '한·미 합훈 중지' 카드로 잠재우려는 심사가 엿보인다. 교류협력과 핵문제를 완전분리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 미국이 남측과 상의없이 추진 중인 이지스함 동해배치 구상을 무산시킬 것을 남측에 요구하는 것과, 당초 예상됐던 식량차관 제공 요청을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북측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남측 정부의 대북자세가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 한·미 합훈 및 이지스함 배치 구상 무산 카드를 던졌다는 관측도 있다.

매번 현안을 놓고 승강이를 벌이다가 막판에 해결책을 찾은 것이 장관회담 관행이어서 아직 희망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북측이 장성급회담에 워낙 부정적 입장을 보여 이 사안만큼은 공동보도문에 담기 어려울 듯하다. 이산상봉 외에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측의 노력 등의 사안에선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

평양공동취재단·김진호기자

남북 첫 장성급회담 이달 중순께 열릴듯

北군부 전격 수용... 무력충돌 방지·신뢰구축 논의

남북한은 7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제 14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이달 중 장성급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회담은 이달 중순을 전후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면

북측 권호웅 단장은 이날 낮 종결 전체회의를 마친 뒤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과의 대표 접촉을 전격 제의, "종결 회의의 시간에 군사당국으로부터 지난 13차 회담에서 합의하고 남측이 2월 중순 제의해 온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한다는데 동의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남북 양측은 "제 15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8월 3일부터 6일까지 연다."는 합의사항만 수록한 공동 보도문을 수정, "쌍방은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남북간에 처음인 장성급 군사당국자회담이 열릴 경우 지난 2000년 9월 제주도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제외하고는 군사당국간 최고위급 회담 채널이 개설되는 셈이다.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 흐름에 맞춰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서해안 꽃게잡이를 둘러싼 남북간 무력충돌 사전 방지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조심스레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을 마치고 귀환, 삼청동 회담사무국에서 간담회를 가진 정 장관은 "(권호웅 북측 단장은) 군사당국간 회담의 시간을 멀리 잡을 것 없다고 했고, 이달 중순을 전후해서 열릴 것"이라며 다음 주중 연락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 정 장관은 이어 '장성급회담이 이번에는 열리는 게 확실하나,'는 질문에 "13차 회담 때는 군사당국에 건의한다고만 했고 이번에는 군사당국간 회담 개최에 합의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회담 기간 다른 사안들도 협의할 했고 어느 정도 합의된 일정도 있다."며 "제 10차 이산가족 상봉사업이 6·15를 계기로 20일을 전후해서 6일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한의 행사 등을 감안, 19~24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어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 "이 문제는 당위론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거기까지는 빠른 것 같다."며 "북측은 대안으로 개성공단에 경협 협의사무소가 생기면 여러가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北, 한미훈련 트집잡다 막판U턴

4~7일 평양에서 열린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은 '기대-실망-급반전' 양상으로 긴박하게 진행됐다. 2002년 이후 장관급회담에 8차례 참가했던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이 "가장 힘든 회담이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북측은 회담 내내 초강수를 두면서 남측을 압박했지만, 대표단의 평양 출발을 코앞에 두고 군장성급회담에 합의해 역시 '급한 쪽은 북측'이란 점을 확인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막판 합의의 미스터리=북측이 회담의 '사실상 결렬'을 선언하는 합의문까지 낭독한 상태에서 왜 갑자기

는 점에서 회담 합의 실패가 남북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겠느냐"고 분석했다.

▽장성급회담 및 남북관계 전망=장성급회담이 열린다면 5~6월 꽃게잡이철을 앞두고 서해상에서 남북간 우발적 충돌을 막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남북은 1999년과 2002년 꽃게잡이철에 서해상에서 두 차례 무력충돌을 겪었다.

장성급회담은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북한 핵 문제라는 근본적 위협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부차적인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목타는 南과 北

평양=사진공동취재단

7일 북한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종결회의가 별 성과 없이 끝난 뒤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왼쪽)과 북측 대표단장인 권호웅 내각책임참사(오른쪽)가 착잡한 표정으로 물을 마시고 있다. 북측은 남측 대표단이 서울로 떠나기 직전 군장성급회담 개최에 동의했다.

'사실상 결렬' 상태에서 돌연 태도바뀌 짐싸던 南대표단에 "다시 회담" 통보 '용천변수' 불구 회담분위기 변화없어

군장성급회담 개최에 합의해 줬는지는 의문이다.

남북이 7일 오전 10시반 종결회의에서 교환한 당초 합의문에는 '15차 회담 날짜'만 들어 있었다. 그러나 북측은 남측 대표단이 고려호텔에서 짐을 싸던 오전 11시55분 돌연 수석대표 접촉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이뤄진 10분간의 회동에서 장성급회담에 동의했다.

정 장관은 서울에 돌아온 뒤 "북측 대표단장인 권호웅 내각책임참사가 중요한 문제라며 문서까지 갖고 와 또 박포박 읽기까지 했다"고 밝히고 "남측이 장성급회담을 그토록 중시한다

▽원점으로 돌아온 남북회담 문화=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이슈를 줄곧 제기하면서 다른 안전에 대한 논의를 차단했다. 이는 남측의 예상과는 180도 다른 것이었다.

남측은 △용천 참사에 대한 지원 △4·15총선 이후 정치권에서 확산된 우호적 대북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최근 방중기간에 밝힌 '6자회담에 최선' 발언 등에 따라 이번 회담에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컸었다. 정부가 회담 전에 식량 40만 톤 지원의 실무방안을 검토했던 것도 이때문이었다.

14차 남북장관급회담 주요 의제의 논의 결과

준비한 의제	결과	진행상황 및 전망
군장성급회담	막판 합의	올 2월 13차 회담에서 "조속히 개최한다"(남측) "개최를 군 당국에 건의한다"(북측)고 합의했으나 남측의 2월 중순 개최 제안에 북측은 무대응, 남측은 5월 중 개최 기대
남북 이산가족 상봉	사실상 합의	6·15정상회담 4주년에 즈음해 6월 19~24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의견 접근
식량 지원	논의 안함	남측은 식량 40만 톤 지원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었음, 회담에선 쌀의 '시웃 자'도 거론 안 했다고 통일부는 설명
남북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 못함	북측은 "아직은 서울 평양에 설치하기엔 이르다"고 반응
남북 사회문화협력 본과위 설치	면역 논의 못함	13차 회담부터 추진했으나 다른 현안에 밀려 본격적으로 논의 못했음
북한 핵 문제	논의	공동발표문에 반영 못했지만 '3차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 의견 일치

회담 참가자들은 예상치 못한 북측의 완강한 태도에 대해 "새로이 단장으로 등장한 45세의 권 책임참사가 데뷔전을 거칠게 치르려는 속사가 대변된다"고 풀이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장성급회담 15일전후 개최

남북 장관급회담서 합의...20일께 이산상봉도

오는 15일을 전후해 남북 장성급회담이 열린다. 또 다음달 20일 쯤에는 제10차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이뤄진다. 남북은 평양에서 계속된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을 7일 마무리한 뒤 장성급회담 개최를 비롯해 15차 장관급회담을 오는 8월3~6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남북은 보도문에는 담지 않았지만 다음달 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장성급회담 개최시기와 관련, "북측이 다음주 중 일정을 통보해오면 20일을 전후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측 권호웅 단장도 "인차(곧) 된다"고 말했다. 남측은 판문점에서 장성급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매년 6~7월 꽃게잡이철마다 서해상의 긴장을 높인 우발적 충돌 문제 등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간 논의가 처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이날 오전 종결회의까지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요구하며 남측의 장성급회담 개최요구를 거부했으나 회담 공식일정이 모두 끝난 뒤 추가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장성급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남북은 이어 공동보도문을 수정, '쌍방은 군사당국자 회담을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는 문구를 추

가로 삽입했다. 북측 권호웅 단장은 수석대표 접촉에서 "종결회의 시간에 군사당국으로부터 지난 13차 회담에서 합의하고 남측이 지난 2월 중순 제의해 온 군사당국자 회담을 개최한다는 데 동의한다

한국일보

2004. 5. 8 (토)

南北장성급회담 이달 열릴듯

장관급회담, 내달 이산상봉도 합의

남북은 7일 평양에서 끝난 제14차 장관급회담 막바지에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또 다음달 20일을 전후해 10차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열린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전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종결회의에서 15차 장관급회담을 8월초에 개최한다는 데만 합의하고 나머지 현안에 대한 절충에 실패했다. ★관련기사 A5면

그러나 남측 대표단 출발 직전 권호웅 북측 단장이 정세현(丁世鉉) 남측 수석대표에게 "(북측) 군사당국이 13차 회담 때 합의한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에 동의했다"고 전해왔

다. 이에 따라 양측은 공동보도문을 수정해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합의 사실을 포함시켰다. 정 수석대표는 "북측이 시간을 멀리 집을 필요 없다고 밝혀 5월 중순 개최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표는 또 "합의 문에는 없지만 북측 책임 있는 인사가 당초 협의했던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혀 6월 중 열릴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담은 북측이 주장한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문제 때문에 막판까지 난항을 겪었다.

/평양=공동취재단

정상원기자 ornot@hk.co.kr

는 연락이 왔다"고 입장 번복 배경을 설명했다. 남북은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국방장관회담을 연 이후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지금까지 군사당국자 회담을 열지 못했다. 김진호기자·평양 / 공동취재단

중앙일보

2004. 5. 14 (금)

韓赤 “내달 19일 이산상봉 제안”

대한적십자사는 다음달 19일부터 24일까지 금강산에서 1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고 14일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다. 한적 관계자는 13일 “관문점 대북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의할 것”이라며 “북측의 회신이 오는 대로 후보자 300명의 선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북한은 지난 7월 평양 장관급 회담에서 6·15 공동선언 4주년에 맞춰 이산상봉을 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한겨레

2004. 5. 21 (금)

한반도 소식

24~25일 금강산서 남북적십자실무접촉

남과 북의 적십자사는 24~25일 금강산에서 제4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열어 제10차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인도적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20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합의했다고 대한적십자사가 밝혔다. 한적 관계자는 “이번 접촉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이외에 면회소 부지 측량과 지질조사에 대한 협의, 북한 의료분양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중앙일보

2004. 5. 21 (금)

◆남북 24일 이산상봉 절차 협의=남북한은 24일부터 이틀간 금강산에서 4차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는다. 양측은 이 접촉에서 오는 6월 19일께 열기로 구두 합의한 10차 이산상봉 행사의 구체적인 절차, 응천참사 복구지원을 위한 적십자 차원의 협력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접촉에는 이병용 한적 총재특보와 북한 적십자회 최성의 상무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문화일보

2004. 6. 8 (화)

내일신문

2004. 6. 8 (화)

제10차 이산가족 상봉 내달 11~16일 금강산서

■ 남북한은 오는 7월 11일부터 16일
까지 금강산에서 제10차 이산가족 상
봉을 갖기로 합의했다. 조선중앙통신
은 8일 용천참사 현장을 방문하기 위
해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대표단
일원으로 방북한 이윤구 대한적십자

사 총재가 7일 평양에서 북한의 장재
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과 이갈
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김종태기자

10차 이산상봉 7월 11~16일

남북한은 오는 7월 11일부터 16
일까지 금강산에서 제10차 이산가
족 상봉을 갖기로 합의했다.

지난 5일부터 용천참사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국제적십자사연맹
대표단 일원으로 방북한 이윤구 대
한적십자사 총재는 7일 평양에서
북한의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중앙
위원장과 이갈이 합의했다고 조선
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남북 양측 적십자사 총재는 또
이날 접촉에서 양측이 제기한 문
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실무적 문제는 판문점 적
십자 연락관 접촉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 최선영 기자

世界日報

2004. 6. 9 (수)

내달 11일 금강산서 10차 이산가족 상봉 남북적십자 합의

북한 용천참사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국제
적십자사연맹(IFRC) 대표단 일원으로 방북
한 이윤구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평양에서 북
한의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과 만
나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금강산에서 제10차
이산가족 상봉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북한 조
선중앙통신이 8일 전했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9일 판문점 연락
관접촉을 통해 제10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생사주소확인 의뢰자 200명 명단을 교환한다.

남북 적십자사는 후보자가 의뢰한 가족들
의 생사 여부와 주소를 확인해 이 결과를 담은
회보서를 24일 교환하고 28일에는 상봉을 하
게 될 남북 이산가족 각각 100명씩의 최종명
단을 주고 받는다. 박호근기자

중앙일보

2004. 6. 9 (수)

내달 11~16일 금강산서 10차 이산상봉

제1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
사가 다음달 11일부터 16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다. 북한은 8일
관영 중앙통신을 통해 이윤구 대
한적십자사 총재와 장재언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이 지
난 7일 평양에서 이갈이 합의했
다고 밝혔다. 지난 3월 9차 행사

에 이은 이번 상봉에서는 남북한
의 이산가족 각 100명이 가족과
만나게 된다. 한적 관계자는 "9
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200명씩의 후보 명단을 교환한
뒤 이를 토대로 생사확인 작업을
벌여 최종 상봉자 100명을 선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2004. 6. 9 (수)

10차 이산상봉 새달 11~16일

제1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다음 달 11~16일 금강산에서 열린다. 국제적십자자연맹 대표단의 일원으로 5~7일 용천 참사 현장 등을 방문한 이윤구 대한적십자사(한적) 총재는 7일 평양에서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과 이렇게 합의했다고 북한 관영 <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이재훈 기자, 연합 nomad@hani.co.kr

한국일보

2004. 6. 9 (수)

내달 11일 금강산서 이산가족 상봉

남북 적십자사는 7월11일부터 16일까지 금강산에서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합의했다. 통일부는 8일 북한 용천역 참사현장 방문을 위해 방북했던 이윤구 대한적십자사총재가 7일 평양에서 북한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2004. 6. 9 (수)

10차 이산가족 상봉 희망자 남북, 각 200명 명단 교환

■ 남북 적십자사는 9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7월 제10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생사주소 확인 의뢰자 200명씩의 명단을 교환했다. 북측에 전달될 남측 의뢰자 200명은 남성 137명, 여성 63명으로 90대 7명, 80대 8명, 70대 82명, 60대 23명이다.

중앙일보

2004. 6. 10 (목)

이산 상봉 신청 200명 명단 교환

남북 양측은 9일 오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다음달 11~16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10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생사·주소확인 의뢰자 200명의 명단을 교환했다. 양측은 이를 토대로 재남 및 재북 가족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해 24일 조사 결과를 담은 회보서를 교환한 뒤 28일 상봉하게 될 남북 이산가족 100명씩의 최종 명단을 주고받는다. 북측 명단에는 인민당 당수를 지낸 몽양 여운형씨의 조카 여운구(71)씨, 텔런트 김무생씨의 외삼촌인 장경수(79)씨 등이 포함돼 있다. 자세한 명단은 www.joongang.co.kr 참조.

뉴스 브리핑

김무생씨 등 이산상봉 명단교환

남북한 적십자사는 9일, 다음달 11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릴 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앞서 상봉 후보자 200명의 명단을 교환했다.

북한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200명 중에는 탤런트 김무생씨의 외삼촌인 장경수(79)씨와 월북한 몽양(夢陽) 여운형씨의 조카 려운구(71)씨,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김민하(70)씨의 누나 옥희(76)씨 등이 포함돼 있다.

김무생씨는 기자회견의 통화에서 “어렵듯이 외삼촌에 대한 기억이 난다. 살아계시니 좋다”면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다행이다. 연락이 오면 만나러 가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어머니 형제는 모두 6남매인데, 어머니는 전쟁 전 내가 다섯 살 때 돌아가셨고, 그 외삼촌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분은 남쪽에 사시다가, 다 세상을 떠나셨다. 북쪽에 계신 외삼촌만 유일하게 살아계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적십자사는 각각 상봉 후보자 200명이 찾고자 하

는 상대측 지역의 가족·친척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 결과를 오는 24일 교환하며, 이를 근거로 최종 상봉 각 100명씩을 선정해 28일 명단을 교환한다.

김인구기자 ginkp@chosu

南北 제10차 이산상봉 명단교환

남북 양측은 9일 오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제10차 이산가족 상봉(7월 11~16일, 금강산)을 위한 생사 주소확인 의뢰자 명단 200명씩을 교환했다. 양측은 이들 명단을 토대로 재남·재북 가족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해 24일 결과를 담은 회보서를 교환하고 28일에는 상봉하게 될 남북 이산가족 각각 100명씩의 최종 명단

을 주고받기로 했다.

북측이 의뢰해온 상봉 후보자 명단에는 인민당 당수를 지낸 몽양 여운형씨의 조카 려운구(71)씨, 유명 탤런트 김무생씨의 외삼촌인 장경수(79)씨 등이 포함돼 상봉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전체 명단은 세계일보 인터넷 홈페이지(www.segye.com) 참조.

연합뉴스

문재인수석, 北 이모 만날듯

北측 상봉후보에 끼어

북한 적십자회가 지난 9일 대한 적십자사에 보낸 제10차 이산가족 상봉 북측 후보자 200명 명단 중 문재인(文在寅·사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막내 이모 강병욱(55)씨가 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측이 보내온 명단에 따르면 강병욱씨는 생사확인 대상으로 만난 인인인 문 수석의 어머니 강한옥(77)씨와 조카인 문 수석 등 2명을 올렸다. 함경남도 함주군 출신인 문 수석 어머니는 6남매 가운데 딸 딸로 6·25 전쟁 때 가족들과 헤어져 혼자 남쪽으로 내려왔다.

문 수석은 "(어머니가) 노태우



정부 때부터 동생들을 찾기 위해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연락이 없어 포기했었다"고 말했다.

다. 그동안 북측이 보내온 명단은 거의 대부분 월북·남북자거나 그 가족이었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선정 때 북측은 남한과 달리 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문 수석의 막내 이모가 후보자 명단에 포함된 것은 북한 당국이 문 수석을 의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김민구기자 ginko@chosun.com

문재인수석 새달 北이모 상봉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다음달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북한 함경남도에 살고 있는 막내이모를 만난다. 문 수석은 북한 충남 출신의 어머니 강한옥(77)씨와 함께 오는 7월11~13일 금강산을 방문, 막내이모 강병욱(55)씨를 만날 예정이다.

남북은 28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다음 달 11~16일 두 차례로 나눠 실시될 제10차 이산상봉을 위한 100명씩의 최종명단을 교환했다.

한겨레

2004. 6. 29 (화)

10차 이산가족 상봉명단 확정

문재인 수석, 북 이모 만나 탈린트 김무생씨는 외삼촌

다음달 11~16일 금강산에서 치러질 제1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여할 남북의 가족들이 28일 최종 확정됐다.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북측의 이모 강병욱(55)씨를 만나게 됐고, 유명 탈린트 김무생(61)씨가 북측의 외삼촌 장경수(79)씨를, 김민하 전 민주평통 수석부장이 누나 김옥희(76)씨를 만나게 됐다. 김 전 부의장의 경우 지난 2002년 5월 금강산 이산상봉 당시 북측의 형 성하씨(77)를 만난 적이 있어 이번이 두번째라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다음 달 11~13일 북측 상봉 대상자 100명을 만나는 남측 가족 500명에 포함돼 방북한다. 몽양 려운형의 조카 려운구(71)씨도 같은 기간 남측 가족을 만난다.

남북 적십자사는 28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10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최종 명단(남북 각 100명)을 주고받았다.

이번 행사에 참가할 남측 최고령자는 허유정(97)씨로 북측의 아들 부부 등을 만나며, 북측 최고령자는 김동신(84)씨로 남측 누나의 조카 등을 만나게 된다. 남측 상봉 대상자 100명이 14~16일 만날 북측 가족은 부부·자식 관계가 29명, 형제자매가 54명 등이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고려대 교수 “文수석 이산상봉은 北공작 의혹” 文수석 “지금 이 어느때인데... 논란 자체 답답”

靑 신문고 이번엔 ‘문재인 공방’

문재인(사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11일 금강산에서 북한의 이모와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북한 전공 교수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그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4일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글을 띄워 “북한에서 (문 수석이) 남쪽의 유명 인사이고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라고 생각해 이모님을 찾아내 상봉을 시키는 것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명백한 대남 공작인데 공직자로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봐야 한

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 수석이 수 차례 상봉 시도를 하다 안됐는데 이번엔 북쪽 이모가 먼저 문 수석의 어머니를 찾아서 상봉이 이뤄진다”며 “문 수석은 남쪽에서 출생했는데 어떻게 이모가 문 수석을 알게 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수석은 “지금의 남북 관계는 70년대처럼 공작으로 무엇이 되는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며 “만일 이것이 논란이 된다면 내가 상봉 장소에 가지 않으면 되는 일이지만 꼭 그렇게 논의가 흘러가야 하는지 답답한 생각이 든다”고 반론했다.

한편 유 교수는 “북쪽 출신이 월남 가족을 찾는 경우는 문 수석 경우가 처음인데 북한이 이제 정책을 변경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통일부 확인결과 북한측에서 월남가족을 찾는 경우는 5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주희기자orwell@hk.co.kr

世界日報

2004. 6. 29 (화)

10차 이산상봉 명단 교환 문재인·김무생씨등 포함

문재인(사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오는 7월 11~16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중 북한에 살고 있는 막내 이모(강병옥·55)를 만난다고 정부 관계자가 28일 밝혔다. 북한 흥남 출신인 문 수석의 어머니 강한옥(77)씨는 5남매 중 장녀로, 한국전쟁 당시 남편(문용형·78년 작고)과 함께 월남했으며, 50여년



을 이산가족으로 살아왔다.

한편 남북적십자사는 28일 제10차 이산가족 상봉자 최종 명단을 주고 받았다. 남북 각 100명씩인 최종 명단에는 인민당 당수를 지낸 몽양 여운형씨의 조카 여운구(71)씨, 유명 텔런트 김무생씨의 외삼촌인 장경수(79)씨, 김민하 전 민주평통 수석부회장의 누나 김옥희(76)씨 등이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유호열 교수

“생면부지 이모가 어떻게 文수석 찾나 대통령 최측근 이산상봉은 신중해야”



문재인 수석

유호열교수 “北서 먼저 제의… 대남공작 의혹”

文수석 “공작으로 일 꾸미던 시대는 지났다”

11일 금강산에서 시작되는 제1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柳浩烈) 교수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유 교수는 4일 밤 인터넷 신문고에 올린 글을 통해 “만약 북쪽에서 문 수석을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라 생각하고 이모를 찾아내 상봉을 주선한 것이라면 이는 대남공작의 일환”이라며 “문 수석은 북한의 전략에 응하지 않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문 수석은 이번 상봉행사에 함경남도 홍남이 고향인 모친 강한옥씨(77)를 모시고 참석해 북한에 살고

있는 막내 이모 병옥씨(55)를 만날 예정이다. 문 수석의 어머니 강씨는 6남매 중 장녀로 6·25전쟁 때 남편(1978년 작고)과 함께 월남했다.

유 교수는 “만약 남쪽에서 먼저 문 수석의 가족을 수소문해달라고 북쪽에 비공식 요청을 했다면 매우 중대한 사태이자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북쪽 이모는 월남한 이후에 태어난 문 수석의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상봉신청자 명단에 문 수석의 이름이 들어있는지도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수석은 5일 전화통화에서 “북한에서는 우리처럼 무작위가 아닌 여러 가지 이유로 상봉 대

상자를 선정한다고 들었다”며 “그런 고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남북관계에 비춰볼 때 ‘공작’으로 무슨 일이 되는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또 문 수석은 “북쪽 이모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나도 모르겠으나,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런 것 같다”며 “정 문제가 될 경우 내가 가지 않으면 되는데, 아들 형제 중에 동생은 선장으로 배를 타고 나가 있어서 80세 가까운 노모를 모시고 갈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 교수는 “북에서 상봉을 신청한 사람 중 북쪽 출신이 월남한 가족을 찾는 것은 아직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통일부측은 “그런 사례가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北 “남측 방북 당분간 불허”

“김일성추모식 참가 차단” 비난...이산상봉 차질 우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8일 남한이 김일성 주석 사망 10주기 추모행사에 참가하려고 문익환 목사의 부인 박용길 장로 등의 방북신청을 불허한 것을 비난하면서 당분간 방북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릴 1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당분간 남북관계가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이 박장로 등의 방북을 차

단한 것을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 한 뒤 “북남 사이의 초보적인 인사래(내)왕도 가로막는 자들에게는 래왕의 길을 열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앞서 이날 오후 북측은 남측 민간단체들에 팩스를 보내와 ‘내부사정’ 또는 ‘돌발적으로 뜻밖에 생긴 정황’을 이유로 평양 방문을 오는 20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통보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송경민 부장은 “오늘 오후 베이징과 선양의 북한 영사부에서 비자발급을 갑

자기 중단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9일부터 20일까지 7개팀의 방북이 예정돼 있었는데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관계당국의 한 관계자도 “북측이 8일부터 20일까지 방북을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금강산에 파견한 선발대가 오늘 남측 행사요원 명단을 건넬 당시만 해도 이상징추가 없었다”면서 “상봉행사의 연기 여부는 아직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jh@kyunghyang.com

남북 이산상봉 예정대로 열려

北 '김일성 조문' 꼬투리... 다른 남북행사는 차질 前안기부 간부 이병기-텔런트 김무생씨 등 포함

김일성 주석의 10주기 조문 문제로 일부 민간단체의 방북과 남북 당국간 회담이 연기되는 등 남북관계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11일 오후 단체상봉을 시작으로 예정대로 진행됐다.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 471명은 이날 금강산에서 50여년간 헤어졌던 북측 가족을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며 지난 세월의 아픔을 달랬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시민사회 수석비서관은 함경남도 흥남이 고향인 어머니 강한옥씨(77)와 함께 생면부지의 막내이모 강병옥씨(55)를 만났다.

문 수석은 "이모님, 제가 조카 문재인입니다"라고 어색하게 말문을 열었다. 이모가 아무 말 없이 어머니와 부둥켜안은 채 연신 눈물만 흘리자 문 수석도 결국 눈물을 떨궜다. 문 수석은 "어머니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어

머니가 이렇게 이모를 만나 '염원의 1만분의 1이라도 풀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상봉단에는 김영삼 정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 해외담당 차장을 지낸 이병기(李丙琪·58)씨가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전 차장이 만난 고모 이순덕씨(71)는 경기여고 3학년이던 6·25전쟁 중 서울대 병원에서 북한군 부상자 치료를 돕다가 북한군이 후퇴하면 서 북으로 건너갔다. 이씨는 "김일성종합대를 최우등 졸업한 뒤 김형직대 교수를 거쳐 인민대학습당 연구사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텔런트 김무생씨는 이날 어머니 형제 중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북측의 외삼촌 장경수씨(79)를 만났다.

남측 상봉단은 이날 오후 금강산 온정각에서 단체상봉에 이어 저녁 식사를 겸한 환영만찬 시간을 통해 재회의 기쁨을 맛봤다.

금강산=공동취재단

매일경제

2004. 7. 12 (월)

문재인 수석 北이모 만나

"이모님, 제가 조카 문재인입니다."

단체상봉이 시작된 오후 4시 금강산 온정각에서 이모 강병옥씨(55)가 남색 한복을 차려입고 상봉장에 모습을 나타내자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모를 자리로 안내했다.

한편 김일성 주석의 10주기 조문 문제로 남북관계가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11일 오후 단체상봉을 시작으로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날 문민정부 당시 안기부 해외담당 차장을 지낸 이병기 씨(58)는 6·25전쟁 당시 북으로 간 고모 리순덕씨(71)를 만났다. 금강산=공동취재단

朝鮮日報

2004. 7.12 (월)



금강산 이산상봉... 문재인 수석 北이모 만나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오른쪽)이 11일 금강산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 어머니 강한옥(왼쪽)씨와 함께 북측의 막내이모 강병옥씨를 만나고 있다. 김영삼 정부때 안기부 차장을 지낸 이병기씨는 6·25 당시 북으로 간 고모 이순덕(71)씨를, TV탤런트 김무생씨는 북측의 삼촌 장경수(79)씨를 각각 만났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중앙일보

2004. 7.12 (월)

문재인 수석 북한 이모 만나 금강산 10차 이산상봉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10번째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11일 금강산에서 열렸다. 이날 상봉에선 북한 조선적십자회 측에서 선발한 북측 상봉단 100명이 남측에서 간 471명의 가족과 만났다.

남측 가족 중 최고령인 노복금(95) 할머니는 북측의 큰아들 임승호씨를 만났다. 노 할머니는 어릴 적 사고로 엄지손가락을 잃은 승호씨의 손을 만지면서 상봉의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노 할머니의 남편 임복구(97) 할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

을 듣고 흥분하는 바람에 거동이 불편해져 상봉에 참가하지 못했다.

청와대 문재인 시민사회수석도 북한 총남이 고향인 어머니 강한옥(77)씨와 함께 막내이모 강병옥(55)씨를 만났다. 또 청와대 의전수석과 안기부 해외담당 차장을 지낸 이병기씨는 6·25전쟁 당시 월북한 고모 이순덕(71)씨를 만났다. 탤런트 김무생씨도 외삼촌 장경수(79)씨를 만나 “외삼촌이지만 꼭 어머니를 뵙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이영준 기자 yjlee@joongang.co.kr

95세 어머니, 백발된 北아들보고 눈시울

10차 이산가족 상봉 화제의 가족들

김일성 주석의 10주기 조문 문제로 일부 민간단체의 방북과 당국간 회담이 연기되는 등 남북관계가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11일 오후 단체상봉을 시작으로 예정대로 진행됐다.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 471명은 50여년간 헤어졌던 북측의 가족 100여명을 만나 반세기가 넘는 이산의 한을 달랬다.

이번 상봉에서는 95세의 고령 할머니 2명이 각각 북측의 아들을 만났는가 하면 50여년 만의 부부, 부녀 상봉이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남측 상봉단 가운데 최고령인 노복금(95) 할머니는 북측의 아들 임승호씨를 부둥켜 안고 "이게 우리 아들이야"라고 하자, 승호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큰절을 올리며 "어머니 죄송합니다"라며 그간의 불효에 대한 용서를 구했다.

또 노복금 할머니와 동갑인 남쪽의 주애기 할머니는 헤어질 당시 서울중학교 5학년이던 소년에서 백발의 노인이 된 북측의 아들 이강백(71)씨를 만났다.

강백씨는 어머니에게 "강백이가 왔습니다"라고 큰절을 올렸고 늙은

前 안기부 해외차장 이병기씨 고모 만나

탤런트 김무생씨도 외삼촌 상봉 한풀어

아들 강백씨는 오른쪽 감지가 없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글비 가시를 골라내다 이렇게 되셨다"고 했다.

북측의 이종하(77)씨는 54년 만에 부부, 부녀 상봉을 하는 감격을 누렸다. 이씨는 남쪽의 아내 정희섭(76)씨, 큰딸 은신(55)씨, 둘째딸 효동(53)씨를 끌어안았으며, 특히 은신씨에게는 "두 살 때 너를 잃었다"고 말을 건넸다.

이씨는 북측 가족들 사진을 꺼내 그동안 수절해온 아내에게 소개하며

"당신과 헤어진 뒤 6년 동안 혼자 살다가, 통일이 멀어 장가를 갔는데 그 아주머니는 6년 전에 죽었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또 54년 만에 북의 아버지 윤병철(80)씨를 만난 남쪽의 딸 순원(58)씨는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 아버지"라고 흐느껴 주위를 숙연케 했다.

아버지 윤씨는 "그만 울고 시간도 짧운데 이야기를 나누자"며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특히 이번 상봉단에는 6·25전쟁 중 그 험한 세월 속에서도 남과 북에 8남매가 모두 살아있는 가족도 있었다. 박기분(여·77)씨 등 7남매는 남쪽에, 그리고 동생 영돈(71)씨는 북한에 살고 있는 것이다.

기분씨 가족들은 북의 동생 영돈씨를 만나자,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다 끝내 눈물을 흘렸다.

영돈씨는 지난 4월 대규모 폭발사고가 난 평북 용천에 살고 있다고 해 남측 가족들을 놀라게 했다.

영돈씨는 "당시 유리창이 다 깨지는 등 피해를 당했으나 다행히 용천 역과는 9km 정도 떨어진 곳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복구가 상당히 진전됐다"고 전했다.

또 이번 상봉단에는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인기 탤런트 김무생씨가 이모와 외삼촌을 각각 만났고, 6공과 문민정부 당시 청와대 의전수석과 안기부 해외담당 차장을 지낸 이병기씨도 고모를 만났다.

서울경제

2004. 7.12 (월)



文수석 北이모 상봉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어머니 강한옥(왼쪽)씨가 제10차 남북이산가족 첫 단체상봉이 이뤄진 11일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에서 북측의 작은 이모 강병옥씨를 만나 50여년 밀린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文수석 생면부지 이모상봉 눈시울

남측 471명 이산상봉 '애기꽃'

"이모님 제가 조카 재인입니다."

생면부지의 이모를 만난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서먹하게 상봉을 시작했지만 어머니와 이모의 얼싸안는 모습을 지켜보며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다.

제 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중 단체상봉이 시작된 11일 오후 4시 금강산 온정각. 문 수석의 이모 강병옥(55)씨가 푸른색 한복을 차려 입고 상봉장에 들어서자 문 수석이 다가가 자리로 안내했다. 문 수석의 어머니 강한옥(77)씨는 동생에게 "네가 병옥이다."고 물었고, 두 자매는 얼싸안고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한옥씨는 북받치는 감정을 추스르고 병옥씨와 대화를 이어갔다.

문 수석은 어머니와 이모가 대화하는 장면을 바라보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문 수석은 자기 때문에 어머니와 이모의 상봉이 방해받지 않을까 우려해 물러드는 기자들에게 "이제 그만하자."고 말하기도 하고, 탁자 위에 놓인 마이크를 치우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북측도 문 수석의 가족 상봉



제10차 이산가족 상봉단에 포함된 문재인(오른쪽)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11일 어머니 강한옥(왼쪽)씨와 함께 금강산 온정각에서 이모 강병옥씨를 만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장면을 집중 촬영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 471명이 50여년간 헤어졌던 북측 가족들을 만나 애기꽃을 피우며 이산의 환을 달랐다.

올해 95세로 남측 상봉단 가운데 최고령인 노복금 할머니는 73세의 큰 아들 임승호씨를 부둥켜 안고 "이게 우리 큰 아들 아니여."라고 하자, 승호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큰 절을 올리며 "어머니 죄송합니다."라며 그간의 불효에 대한 용서를 구했다. 승호씨는 아버지(임

복구·97)의 생존 소식에 "놀랍다."며 기뻐했다. 승호씨의 아버지는 아들 소식을 전해듣고 흥분하는 바람에 건강이 나빠져 이번 상봉에 참가하지 못했다.

이병기(58) 전 안기부 해외담당 차장도 한국전쟁 당시 북으로 간 고모 이순덕(71)씨를 만났다. 전쟁 당시 경기도고 3학년이던 이씨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최우등으로 나와 김형직사범대학 당역사강좌장(주임교수급)을 지냈으며, 현재 인민대학습당 연구사로 근무중이라고 소개했다. 금강산 공동취재단

이산가족 471명 금강산 온정각서 상봉 “어머니 빼 닮아...” 文수석 눈시울

제1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단 1진 471명이 11일 금강산 온정각에서 북측 가족과 만나 반세기가 넘는 이산의 한을 눈물로 풀었다.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 문제로 남측 민간단체의 방북 등이 연기되는 등 남북관계가 일부 차질을 빚고 있지만 이날 행사는 오후 4시 단체상봉을 시작으로 예정대로 진행됐다. 12일에는 개별 상봉이 진행된다.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북측 이모의 상봉이 눈길을 끌었다.

문수석은 어머니 강한옥씨(77)와 함께 생면부자인 막내 이모 병옥씨

(55)를 만났다. 한옥씨는 6·25전쟁 당시 함북 흥남에서 거제도로 피란할 때 헤어진 동생 병옥씨를 보자마자 “네가 병옥이나”며 얼싸안은 채 눈물을 흘렸다.

문수석은 소감을 묻자 “20년 전 어머니의 모습과 너무 닮아 처음 보는 분 같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100명씩 짝꿍 짝꿍 만나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다”고 말했다.

인민당 당수뿐 지낸 봉양 여운형 선생의 조카인 남측 여재구씨는 북측의 형 윤구씨(71)를 만났다. 재구씨는 “정말 돌아가신 줄만 알았는데, 살아계셔서 주셔서 얼마나 기쁘지 모

르겠다”고 감격을 전했다.

○...올해 95세로 남측 상봉단의 최고령자인 노복금 할머니는 73세의 큰 아들 립송호씨를 만났다. 노 할머니는 50년도 ‘남이 만난 아들에게 “이게 우리 얘기 아니여”라며 울먹였고, 아들 송호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큰절을 울리며 “어머니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립씨의 아버지 복구씨(97)는 아들의 생존소식을 전해 듣고 흥분한 나머지 건강이 나빠지는 바람에 이번 상봉에 참가하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노복금 할머니와 동갑인 남측의 주애기 할머니는 서울중학교 5학년이던 소년에서 백발이 된 아들 리강택씨(71)를 만났다.

또 탤런트 김무생씨는, 북측의 외삼촌 장경수씨(79)와 상봉. 작고한 어머니의 생전 모습을 전했다. 김씨는 “꼭 어머니를 뵙는 것 같다”며 외삼촌을 끌어안았다.

○...오후 7시부터 온정각에서 진행된 환영만찬에서 남측 단장 이세웅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이산가족 문제는 그 어떤 명분이나 이유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남과 북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북측 단장 최성익, 조선적십자회 상무위원도 “이번 상봉을 통해 혈육의 정과 숙결만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통일이 결코 외침도 기다림도 아님을 피부로 절감했을 것”이라며 “오늘의 상봉이 영원한 상봉으로 되는 그것이 통일”이라고 화답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이해인기자



취재여록

아쉬움만 남긴 離散상봉

10일 오후 3시 강원도 속초 대명콘도 로비. 반세기 동안 부모 형제와 헤어져 살아온 이산가족들이 이곳에 속속 도착했다. 장거리여행으로 인해 얼굴에선 피곤함이 묻어나왔지만 그리운 혈육에게 건네줄 선물꾸러미를 든 두 손에는 힘이 넘쳤다.

남측 상봉단 1진 이산가족 4백76명 중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문제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문 수석은 흥남에서 헤어진 여동생 강병옥씨(55)를 만나러는 어머니 강한옥씨(77)와 함께 서울에서 직접 차를 몰고 왔다.

문 수석은 6남매 중 첫째인 어머니가 이모를 만나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을까 봐 임시 진료소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다. 문 수석은 어머니가 시집간 뒤에 태어난 이모라고 설명하면서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문 수석은 “이제 어머니의 건강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고 말했다. 상봉단 모두 살아온 과정은 달라도 문 수석의 어머니처럼 ‘그리움’이 빼어 사무친 사람들도.

약 1백20만명으로 추산되는 남측 이산가족 1세대 중 문 수석의 어머니는 아주 운이 좋은 편이다.

6·15선언 이후 이번까지 10차례 이



산가족상봉이 이뤄지는 동안 북측 가족을 만난 사람은 6천명을 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 6월 말까지 정부에 북측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은 12만3천3백69명. 이중 70세 이상 고령자가 68%를 차지한다.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1만명가량의 이산가족이 북측 혈육을 보지 못한 채 숨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오후 4시 단체상봉행사가 열린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 시간이 흐르면서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북에 두고 온 아들 송호씨를 만난 주애기씨(95)의 주름진 얼굴에는 눈물이 멈출 줄 몰랐다. 반세기만에 다시 만난 부부와 형제, 자매들은 회한과 오열 속에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했다.

“북측 가족을 만난 노인들은 이제 눈을 감고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금강산에 상설면회소를 설치해 이산가족들이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지원해온 적십자사 간부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같이 말했다.

금강산·최승욱 정치부 기자 swchoi@hankyung.com

한국경제

2004. 7.12 (월)

南 471명 금강산서 이산상봉

前 안기부 차장 이병기-텔런트 김무생도 포함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11일 오후 단체상봉을 시작으로 금강산에서 예정대로 열려 남측 상봉단 471명이 50여년간 헤어졌던 북측 가족들을 만났다.

북한 흥남이 고향인 어머니 강한옥(77)씨와 함께 금강산에 온 청와대 문재인 시민사회수석은 생면부지의 막내 이모 병옥(55)씨를 만났다. 문수석은 어머니와 이모의 눈물 상봉을 지

켜보다 간간이 '눈시울을 붉혔다. 문수석은 "이렇게 100명씩 짙짙 짙짙 만나는 것이 너무 감질난다"면서 "이산가족면회소가 시급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북측관계자들은 취재진이 문수석에게 물리자 "저 사람이 누구냐"며 관심을 보였다.

이병기(58) 전 안기부차장은 6·25 때 북으로 간 고모 이순덕(71)씨를 만

났다. 순덕씨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뒤 김형직사범대학 주임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인민대학 습당 연구사로 근무 중이라고 소개했다. 순덕씨는 전쟁이 일어나자 경기에고 3학년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인민군 부상자 치료를 돕다가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함께 북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특보는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하루 빨리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인기텔런트 김무생씨는 외삼촌 장경수(79)씨를 만나 큰 절을 올렸다. 장씨는 "네가 무생이구나. 너희 어머니가 아들이 없다가 너를 낳아서 이름을 없을 '무', 날 '생'이라고 짓지 않았니"라고 말했다. 김씨는 "내가 네 살 때 어머니가 중병을 얻어 돌아가셨는데, 그 때 외삼촌이 어머니를 살리려고 매일 헌혈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단체상봉 내내 외삼촌의 손을 어루만지며 "이렇게라도 어머니를 느끼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다.

박기분(77·여)씨 등 남측의 7남매와 유일하게 북쪽에 살아 있는 영돈(71)씨 가족이 상봉해 눈길을 끌었다. 남측 여재구씨는 인민당 당수를 지낸 동양여운형 선생의 조카인 형 운구(71)씨를 만났다. 금강산=공동취재단

국민일보

2004. 7.13 (화)

친구를 '친척' 속여 이산상봉

남측 참가자 "北 소꿉친구 너무 보고 싶어서~"

北 재발방지 요구에 南 "유감"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 중인 남측의 한 참가자가 자신이 북측 이산가족의 친척이라고 속여 상봉한 사실이 12일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당초 북측 안남룡씨의 남측 '외삼촌'이라고 관계를 밝혔던 A씨가 안씨의 소꿉친구인 사실이 드러난 것. 11일 단체상봉에서 안씨와 A씨가 북측 관계자에게 '친구'라고 말해 북측은 밤늦게 남측에 사실확인요청했다. 남측은 안씨의 남측 가족과 A씨로부터 "어릴 때 헤어진 친구가 너

무 보고 싶어서 그랬다"는 해명을 듣고 북측에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이 12일 재발방지를 요구, 남측은 '가족과 친척이 아닌 사람이 포함된 데 대해 유감이다. 앞으로 상호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회보서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철저히 하자'는 요지의 문서를 북측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양측은 그러나 이 사안이 이산가족 상봉행사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안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한겨레

2004. 7.13 (화)

비 뿌린 금강산
애뜻한 개별상봉

이산가족 오늘 작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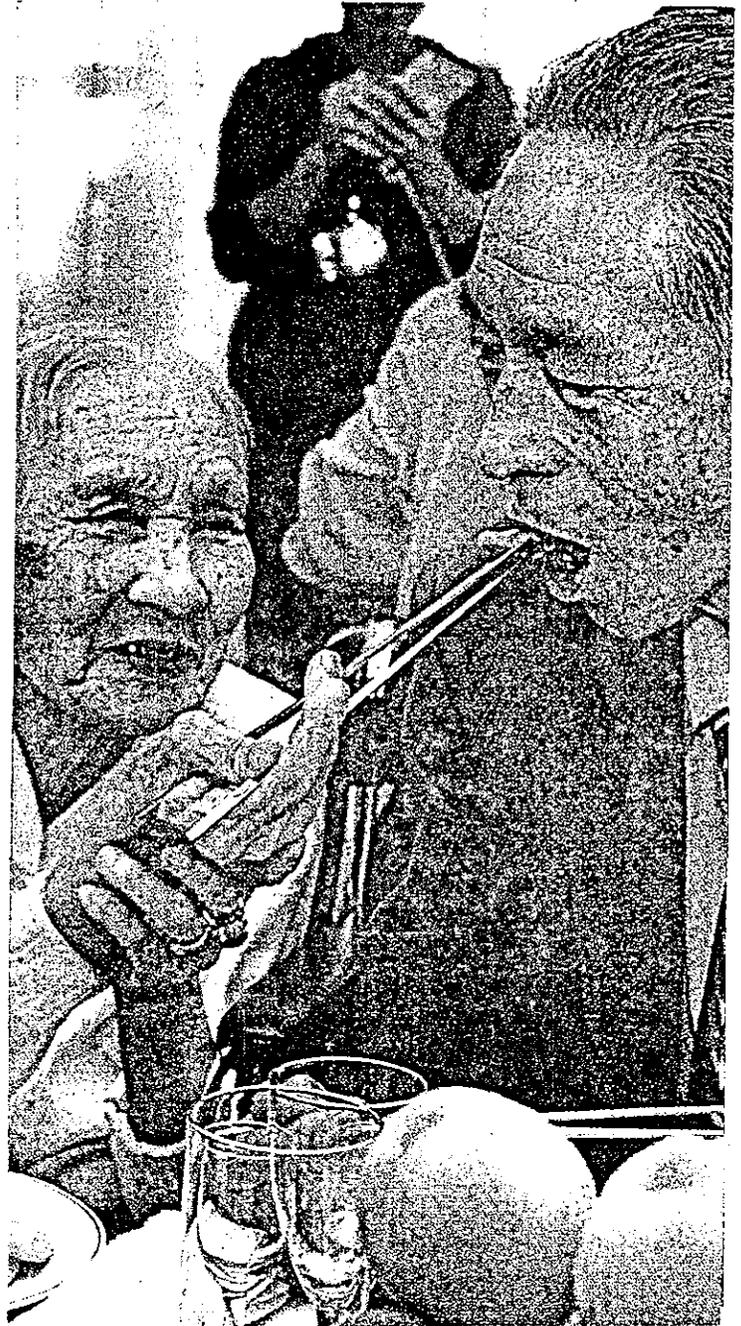
10차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인 12일 남과 북의 가족들(남 471명, 북 100명)은 해금강호텔에서 애뜻한 개별상봉을 한 데 이어, 김정숙휴양소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오후엔 금강산 지역에 내린 굵은 비 탓에 애초 예정된 삼일포 참관 대신 온정각문화회관에서 평양 모란봉 교예단의 공연을 관람했다.

북쪽 오빠 김두찬(73)씨를 만난 김미자(59)씨 가족은 이날 오전 해금강호텔 방 안에서 때아닌 새끼줄을 꼬느라 바빴다. "금강산으로 오기 전에 속초에서 가방을 하나 샀는데 너무 커서 오빠가 들고 가기 힘들 것 같아서요." 남쪽에서 정성 들여 준비해 온 선물을 편하게 들고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북쪽 전길봉(75)씨와 남쪽 전원덕·길상·길례·근철씨 가족은 객실에서 제사를 지냈다. 전원덕씨는 "아버지가 형님절을 받으려고 이날(12일) 돌아가셨나 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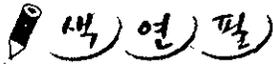
남과 북의 가족들은 만남 이틀째인 이날 한결 여유있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대했다. 점심 때에는 술잔을 부딪히며 의치는 "위하여" 소리가 잇따라 들렸고 <고향의 봄> 등 노래도 함께 불렀다.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개별상봉 때 어머니 강한옥(77)씨와 북녘의 막내이모 강병옥(55)씨가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족을 데리고 잠깐 자리를 피해주기도 했다. 남쪽의 가족들은 13일 오전 온정각 휴게소 안마당에서 북쪽 가족과 작별상봉을 한 뒤, 금강산 육로관광 길을 거꾸로 거슬러 남쪽으로 돌아온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북쪽 안남통씨의 남쪽 외사촌이라고 관계를 밝혔던 한 참가자가 안씨의 소꿉친구인 사실이 드러나 남쪽이 해명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참가자는 "어릴 때 헤어진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남쪽은 "가족과 친척이 아닌 사람이 포함된 데 대해 유감이다"라는 내용의 재발방지 문서를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이지훈 기자 nomad@hani.co.kr



이게 얼마만이나 12일 북한 금강산 '김정숙 휴양소'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에서 남측 상봉단의 주애기 할머니가 아들인 북측 상봉단 어감백씨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北친구 만나려 '외사촌' 속여... 가짜 이산가족 첫 적발



○...금강산에서 개최 중인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측의 참가자 A씨가 북측의 친구를 마치 친척인 것처럼 신청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방북한 사실이 12일 밝혀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북측 안남룡씨의 외사촌이라고 속여서 방북한 A씨가 사실은 안씨

의 소꿉친구인 사실이 드러나 북측에 사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11일 단체상봉 과정에서 안씨를 만난 후 북측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밝혔으며, 북측은 같은 날 밤 우리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해왔다. A씨는 우리측 대표단에 "어릴 때 헤어진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외사촌이라고 속여서 방북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안씨의 친척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후 이날 개별 상봉과 공동오찬, 교예공연 관

람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혼자 해금강호텔에 체류했으며, 13일 작별상봉에도 참가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행사 참석자들이 친척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었기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다음 이산가족 상봉 때부터 행사 참석자들의 신원을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이해원기자 may2@chosun.com

경향신문

2004. 7.13 (화)

친구가 얼마나 보고봤으면...

'외사촌'으로 속여 상봉했다 들통 北에 해명...나머지행사 참석못해

금강산 은정각에서 진행중인 제1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한 남측 참가자가 자신을 북측에 있는 소꿉친구의 친척이라고 속여 상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당초 북측 안남룡씨의 남측 '외사촌'이라고 관계를 밝혀 안씨와 상봉한 7씨가 안씨의 어릴 적 친구인 것으로 드러나 각종 상봉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금지됐다. 7씨의 거짓말은 11일 단체상봉 과정에서 두 사람에게 '친구' 사이라는 얘기를 들은 북측 관계자가 같은날 밤 남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서 들켰다. 남측은 7씨와 안씨의 남측 가족으로부터 "어릴 때 헤어진 친구가 보고 싶어서 그랬다"는 해명을 듣고는 즉시 북측에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북측이 12일 보다 확

실한 재발방지를 요구해 남측은 '가족과 친척이 아닌 사람이 포함된 것은 유감이다. 앞으로 상호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회보서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철저히 하자'는 요지의 문서를 북측에 전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씨는 이날 개별상봉 등 모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혼자 해금강호텔에 체류했으며, 13일 작별상봉에도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양측은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행사 모든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상봉행사 이틀째인 이날 금강산에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장대비가 내리는 등 굶은 날씨였지만 이산가족들은 6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며 꿈만 같은 상봉 두번째 날을 보냈다.

금강산/공동취재단·이해원기자

北소꿉친구 보고싶어 '친척 위장' 상봉

금강산행사 '가짜 이산가족' 물의

제1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 중인 남측의 한 참가자가 자신이 북측 이산가족의 친척이라고 속여 상봉한 사실이 12일 뒤늦게 밝혀졌다. 당초 이번 상봉과정에서 '북측 안남통씨의 남측 외사촌'이라고 관계를 밝혔던 A씨가 알고 보니 안씨의 소꿉친구인 사실이 드

러난 것이다.

11일 단체상봉 과정에서 안씨의 A씨가 북측 관계자에게 '친구'라고 말해 북측은 같은 날 밤 늦게 남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해왔다.

남측은 안씨의 남측 가족과 A씨로부터 "어릴 때 헤어진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다."는 해명을 듣고는 "상봉단 구성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가족·친척이 아닌 사람이 포함됐

다."며 북측에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측이 12일 보다 더 확실한 재발방지 방안을 요구, 남측은 '가족과 친척이 아닌 사람이 포함된 데 대해 유감이다. 앞으로 상호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회보서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철저히 하자.'는 요지의 문서를 북측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족·친척이 아님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날 개별상봉과 공동오찬, 교예공연 관람 등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혼자 해금강호텔에 체류했으며 13일 작별상봉에도 참가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 공동취재단

世界日報

2004. 7.14 (수)

東亞日報

2004. 7.14 (수)

10차 이산상봉단 귀환

北친구 친척으로 속여상봉 南측참가자 별도조사 소동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중인 남측 1진 상봉단 471명은 13일 오전 작별상봉을 마지막으로 2박3일간 금강산 상봉일정을 끝내고 반세기 동안 사무쳤던 그리움을 뒤로 한 채 귀환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이날 낮 남측 이산가족상봉단의 출국수속을 하던 중 외사촌을 가장해 소꿉친구 안남통씨를 만난 조동제(71)씨 케이스를 문제삼으며 일부 이산가족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는 바람에 이산가족의 귀환이 20여분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남북 당국은 이산가족 상봉 대상으로 직계 가족과 8촌이내 친인척 및 배우자였던 사람들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남측 이산가족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온정각휴게소 앞마당에서 북측 가족 100명과 작별상봉을 가진 뒤 해금강호텔을 떠나 남측 지역인 속초 대명콘도로 돌아왔다. 지난 11일 방북한 남측 가족들은 개별 및 단체 상봉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북측 가족들과 헤어지며 혈육의 정을 나눴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사람도 울고... 하늘도 울고...

금강산=신원건기자 laputa@donga.com

1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했던 북측의 한 할머니가 13일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에서 작별상봉을 마친 뒤 남측 가족과 차창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댄 채 작별을 아쉬워하고 있다. 남측 상봉단은 이날 귀환했다.



짧은 상봉 긴 이별 13일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에서 열린 마지막 상봉행사를 마치고 버스에 탄 북측의 이산가족 할머니가 빗물 젖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남측 가족과 손을 맞댄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겨레

2004. 7.14 (수)

눈물 고인 금강산

이산가족 작별상봉...오늘부터 2진

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1진으로 참석한 남측 가족 471명이 13일 금강산에서 작별상봉을 한 뒤 버스 편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속초로 돌아왔다. 최고령으로 북측의 둘째아들을 만날 예정인 허유정(97) 할머니 등 남측 상봉단 2진 가족 149명(동반가족 49명 포함)은 14일 금강산으로 들어간다.

이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온정각에서 열린 작별상봉에서 남측 어머니 노복금(95)씨를 만난 북측 아들 립승호(73)씨는 아버지와 만나지 못한 동생들을 향한 마음을 종이 앞 뒤 면에 작은 글씨로 애곡하게 적은 편지 한통을 건넸다.

어머니와 함께 북측 이모를 만난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시간이 너무 짧았다"며 "헤어진 뒤라도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이라고 말하며 교리를 흐렸다. 문 수석의 어머니 강씨는 "아버지, 어머니 모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다"며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탤런트 김무생씨의 북측 외삼촌 장경수씨는 "우리 올지 말고 헤어지자"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김씨는 "외삼촌 건강하세요"라고 말하고는 목이 메는 듯 뒤를 잊지 못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시사칼럼

가짜 이산가족

국어사전에 따르면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 친구다. 영어의 friend는 '(성적 의미를 배제한) 사랑하는 사람' 또는 '동반자'를 의미하는 중세 영어 freond에서 유래했다고 하고 이런 친구와 우정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설파한 말과 글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예컨대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이렇게 우정을 노래했다. '수많은 연인의 정을 모아도/내 가슴에 타는 우정의 불에는 마치지 못한다/항상 이 가슴에 꺼지는 일 없이/내 혈맥은 따뜻한 때에 물결친다'

또 섹스취페리의 산문은 어떤가. '잃어버린 동료들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오랜 벗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공통된 많은 추억, 함께 당한 그 많은 괴로운 시간, 그 많은 불화와 화해라는 보물만큼 값어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우정은 다시 만들어내지 못한다.'

선현들의 말은 더 간결하지만 그만큼 더 강렬하다. 서양에는 '친구는 또 하나의 나(키케로)', '친구는 두 사람의 육체에 사는 하나의 영혼(아리스토텔레스)' 등의 금언이 전해 내려오고 동양에서는 공자가 벗과의 만남을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 중 하나로 꼽았다. '벗이 있어 먼 곳

에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有朋自遠訪來不亦樂乎)'

그런데 북한에 사는 안남룡씨(72)는 어릴 적 헤어져 남한에서 살아온 친구가 거리는 지적이던 정말 먼 길을 찾아와 만났지만 과연 즐거웠을까. 남한의 A씨는 소꿉친구 안씨가 "너무 보고싶어" 그의 외사촌이라고 속이고 금강산에서 열린 1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했다. 그러나 제대로 회포를 풀기도 전에 금세 가짜 이산가족임이 드러나 양측 당국자들과 다른 이산가족들의 눈총을 받으며 혼자 호텔에 발이 묶였다. 그런 A씨를 생각하면 안씨는 아마도 즐겁기는커녕 슬프고 괴로웠을 게다.

물론 이산가족이 아니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하려한 것은 적어도 규칙 상 옳은 일은 아니다. 그러나 친구는 때로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과 가까울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권세도 우정의 권리를 침범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오비디우스). 도대체 무엇이 죽마고우의 만남을 가로막는가.

그나마 이산가족 상봉도 어렵게 열리는 판에 친구들까지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비칠지 모른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이 나이든 1세대 때문에 더 시급한 것처럼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남북의 이산 친구들에게도 이젠 만남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김성온 논설위원 sokim@kmb.co.kr



눈물의 재회 14일 제1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한 남측 김정원(90·오른쪽)씨가 북측의 둘째딸 황희열씨와 재회 도중 김정이 북받치는 듯 흐느끼고 있다.

금강산=서상배기자

54년만에 불러본 “여보... 애들아”

단신 월남 김경필씨, 부인·자녀와 감격의 재회

10차 이산가족 2진 금강산서 단체상봉

제1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한 남측 2진 상봉단 149명은 14일 오후 금강산에서 북측 가족 237명과 단체상봉을 갖고 50년 만에 혈육의 정을 나눴다.

이날 오후 4시부터 김정숙휴양소에서 이뤄진 단체상봉에서 남측 김경필(82)씨는 북측 아내 김채금(86)씨, 아들 영도(59), 딸 정순(63), 숙녀(58), 옥희(53)씨 등 1남3녀와 54년 만에 재회의 기쁨을 누렸다.

1950년 국군이 후퇴할 때 북쪽에 가족을 두고 단신 월남한 김씨는 “6개월이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흘렀다”며 “재가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온 당신을 보

니 고마우면서도 너무 미안하다”고 말해 주위를 숙연케 했다. 김씨는 남쪽에서 재혼을 해 딸 셋을 두고 있다. 남측 황인규(95)·김정원(90)씨 부부는 50년 전 북에 두고 온 딸 신열(60)·희열(57)씨를 만났다. 상봉단 중 최고령자인 남측 허유정(97·여)씨는 1959년 일본에서 북송선인 만경봉호를 타고 북한에 들어간 아들 황원(67)씨와 며느리·손자를 상봉했다.

북한은 이번 상봉에서 남북자·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상봉을 허용했으나 실제 상봉은 이뤄지지 않았다. 남측 김봉희(80)씨는 국군포로인 남편 유상재씨를 만나려 했으나, 북측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와 대신 조카 김

영환(44)씨 등을 만났다. 남측 윤영자(73)씨는 1968년 7월 납북된 아들 박종업씨를 만나려고 했으나 숨졌다고 알려와 자신의 여동생 선희(69)씨를 대신 만났다.

한편 북한의 여동생 3명을 만난 이우근(81)·봉근(75)씨 형제는 상당히 밝은 표정으로 상봉을 해 눈길을 끌었다.

동생 경옥(79), 주옥(69)씨 등은 꼬깃꼬깃한 어릴 적 흑백사진을 들고 나와 “오빠 사진이다. 모습이 너무 변해 못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주옥씨는 부모님 사진을 들고 “엄마가 오빠들과 헤어진 다음부터는 밥 먹을 때마다 밥 한 그릇을 따로 떠놓았다가 다 식으면 그 밥을 꼭 엄마가 먹으며 오빠를 생각하곤 했다”고 말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이산가족 2진 금강산 단체상봉

제10차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2진 상봉행사가 14일 북한 금강산에서 열렸다. 지난 11일부터 북쪽 100명을 남쪽 471명이 만난 1진 행사에 이어 이날부터 치러지는 상봉행사에서는 남쪽 100명과 동반가족 49명이 북쪽에서 온 가족 237명을 만났다.

오후 4시부터 김정숙휴양소에서 열린 단체상봉에서 남쪽 황인규(95), 김정원(90)씨 부부는 50년 전 북한에 두고온 딸 신렬(60), 의렬(57)씨를 만났다. 어머니 김씨는 "당시 젓먹이를 포함해 다섯 아이가 있었는데 모두 데리고 피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9살 난 신렬이가 의렬이를 데리고 남겠다고 해 두고 왔다"고 회상했다. 또 최고령자인 허유정(97·여)씨가 일본에서 복송선인 만경봉호를 타고 59년 북한에 들어간 아들 황원(67)씨와 며느리, 손자를 만났다.

북한은 이번 상봉에서 남북자와 국군포로 각각 한 가족의 상봉을 허용했으나 68년 7월 납북된 어부 박종임씨의 경우, 숨졌다고 알려와 어머니 윤영자(73·여)씨는 대신 북한에 있던 박씨의 이모이자 여동생인 선희(69)씨를 만났다. 또 국군포로 유상재(81)씨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와 남쪽에 사는 아내 김봉희(80)씨는 조카 김영환(44)씨 등을 만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금강산 공동취재단

이산방문단 2진 금강산 가족상봉

제10차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2진 상봉행사가 14일 북한 금강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측 100명과 동반가족 49명이 북측의 가족 237명을 만났다.

이날 오후 4시 김정숙 휴양소에서 시작된 단체상봉에선 남측 황인규(95) 김정원씨(90) 부부가 50년 전 북한에 두고 온 딸 신렬(60) 의렬씨(57) 자매와

재회했다. 어머니 김씨는 "당시 젓먹이를 포함해 다섯 아이가 있었는데 모두 데리고 피란 나올 수 없어서 아홉 살 난 신렬이가 의렬이를 데리고 남겠다고 해 두고 왔다"며 눈물을 떨어뜨렸다.

상봉 가족들은 15일 남측 숙소인 해금강호텔에서 가족별로 개별 상봉을 한 뒤 오후엔 삼일포를 관광할 예정이다.

世界日報

이산2진 상봉 이틀째 금강산서 개별 만남

제1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한 남북 상봉단 2진은 15일 금강산에서 개별상봉과 공동중식 등을 통해 애절한 혈육 재회의 정을 나눴다.

남측 가족 149명은 행사 이틀째인 이날 오전 10시부터 해금강호텔 내 숙소에서 북측 가족 237명과 개별상봉을 가졌다. 남북 양측은 가족들만의 시간을 마련해 주지는 취지에서 개별상봉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남북 이산가족은 개별상봉에 이어 오후 1시부터 김정숙휴양소에서 2시간 동안 점심식사를 함께했다. 이들은 앞서 14일 단체상봉과 공동만찬을 갖고 반세기 만의 재회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으며, 상당수 가족들은 밤을 지새웠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16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온정각휴게소 앞마당에서 작별상봉을 갖고 지난 11일부터 1, 2진으로 나눠 진행된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마친다.

금강산=공동취재단

한국일보

2004. 7. 16 (금)



우산 쓰고 이산가족 만나러...

제10차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인 15일 북측의 가족들이 우산을 받치고 선물가방을 든 채 금강산 해금강호텔로 걸어가고 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世界日報

2004. 7. 16 (금)

얼씨안은 세자매

15일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이산가족상봉 공동오찬에 앞서 남측의 장인옥(73·가운데)씨가 북측의 동생 영숙(오른쪽), 영옥씨와 얼씨안은 채 얼굴을 비비며 환하게 웃고 있다.

금강산=서상배기자

너무 짧은 하루

이산가족 2진 개별상봉

10차 이산가족 방문단 2진 상봉행사에 참여한 남측 이산가족 100명과 등반가족 49명은 15일 남측 숙소인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북측 가족 237명과 개별상봉을 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이틀째 만남을 이어갔다.

박선비(81)씨의 보호자로 방북한 동생 원동(73)씨는 이날 박씨의 조카 자격으로 나온 아들 장모씨를 만나 얼굴도 보지 못한 또다른 아들의 소식을 듣고 울먹였다. 장모씨는 "아버님이 월남하실 때 어머니가 임신 2개월째였기 때문에 동생의 존재를 모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가족들은 개별상봉을 마친 뒤 삼일포를 둘러볼 예정이었으나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바람에 금강산문화회관에서 북한 교예단의 서커스를 봤다. 이들은 16일 북측 행사장인 김정숙휴양소에서 작별 상봉을 하며, 남측 가족들은 동해선 육로를 이용해 속초로 돌아온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작별 인사하는 남측 가족들 제1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마친 남측 방문단이 16일 금강산에서 남측으로 귀환하기 위해 버스에 올라 올면서 북측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이명원기자 mwlee@chosun.com

서울신문

2004. 7. 17 (토)



다시 만날수 있을까 16일 북한 김정숙휴양소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이산가족 2차 작별상봉을 마친 남측 이산가족들이 북측을 향해 손을 흔들며 오열하고 있다.

금강산 사진공동취재단



이제 가면 언제오나... 16일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작별상봉을 마치고 귀한 버스에 오른 제10차 이산가족상봉행사 남측 참가자들이 북측 가족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다. 금강산=서상배기자

10차 이산가족상봉 눈물속 종료

2진 김정숙휴양소서 작별만남

북한 금강산에서 열린 제10차 남북 이산가족 2진 상봉행사에 참가한 남측 가족 149명과 북측 가족 237명이 16일 김정숙휴양소에서 마지막 상봉을 하고 눈물의 이별을 했다.

이로써 지난 11일부터 1, 2진으로 나뉘어 진행된 제1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종료됐다.

북에 두고 온 두 딸을 만난 남측의 황인규(95)·김정원(90)씨 부부는 이날 "50년 만에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두고 갈 수 있겠느냐"며 딸 신열(60)·의열(57)씨를 부

동켜안고 통곡했다.

신열씨는 "어머니 아버지, 통일되면 우리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더 오래오래 사세요"라며 눈물을 흘렸다.

또 남측 상봉단 중 최고령자인 허유정(97) 할머니는 일본에서 북송선인 만경봉호를 타고 1959년 입북한 아들 창원(67)씨와 며느리, 손자의 손을 잡으며 "내가 이제 살아서 너를 다시 못보지 않겠느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급작스런 지병악화로 15일 오후부터 상봉 일정에 참가하지 못했던 남측 오홍권(89)씨는 대한적십자사가 준비해온 구급차에서 북측의 조카 오현자(58)·금선(65)씨를 상봉해야 했다.

한편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11일부터 사흘간 북측이 선발한 가족 100명을 남측 가족 471명이 만났으며, 14일부터 사흘간은 남측이 선발한 100명과 동반가족 49명(80세 이상 노약자 보호)이 북측 가족 237명을 상봉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이산상봉 10회 결산

고령생존자 수시재회 보장 절실

남북 이산가족 960여명이 지난주 금강산에서 재회의 기쁨을 나누므로써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10회째를 기록했다.

남북은 이산가족과 비전향장가수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합의한 6·15 공동선언문 제3항에 기초해 2000년 8월 15일 서울과 평양에서 역사적인 첫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행사를 치렀다. 이후 4년간 이산가족 상봉을 지속해왔다는 점은 일단 큰 수확이다. 지난해 2·6·9월 세 차례 상봉 행사를 갖는 등 어느 정도 정례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횟수와 규모를 지금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1만명(9980여명) 가까운 이산가족이 상봉했지만, 전체 이산가족 수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1세대 이산가족의 고령화도 고만거려야 한다. 남측 이산 1세대는 123만명가량으로 추정된다. 1988년부터 지난달 말 까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12만3000여명이다.

특히 이산가족의 고령화로 상봉을 신청한 대기자 가운데 2만여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이들 사망자 중

은 80대가 45%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현재 이산가족 중에서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70대가 앞으로 5~10년만 지나면 한자리에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이산 상봉의 확대가 시급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고령 이산가족에겐 서신 교환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서신 교환은 2001년 3월 남북 300명씩

입구 온정각 맞은편의 조포마을에 6000명 규모의 면회소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면회소가 운영되더라도 당분간 현 상봉행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상시로 진행하고, 확인되는 대로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상설화는 당장 어렵다는 것이다.

이산 1세대 123만명중 70대가 절반
횟수·규모 늘리고 서신교환 허용을
특하면 일정차질... 창구상설화 필요

한 차례 이뤄진 뒤 중단된 상태다. 이미 상봉한 가족들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 이산가족들은 상봉 후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상봉 행사 후에도 우울증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일단 생사가 확인된 만큼 2차 상봉이나 재결합 등의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산의 아픔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면회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남북은 지난해 11월 금강산

상봉 행사가 인도적 문제임에도 정치적인 영향을 받은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다. 지난 9차 때는 통일부 직원의 '김정일 위원장 폄하' 발언으로 행사가 차질을 빚었고, 이번 10차에도 북측 가족들이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 문제를 놓고 남측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정치적 의풍에 흔들리지 않는 이산가족 상봉의 제도화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호근기자
/rootpark@segye.com



■ 상봉신청자 현황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2004년 6월말 현재)

연령별	90세이상	80세이상	70세이상	60세이상	59세이하	계
인원수(명)	2335	2만882	4만3401	2만2295	1만2217	10만1130
신청비율(%)	2.3	20.7	42.9	22.0	12.1	100

■ 이산가족 상봉 일시

차수	시기	장소	상봉가족 수
1차	2000.8.15~18	서울·평양	1172명
2차	2000.11.30~12.2	서울·평양	1222명
3차	2001.2.26~28	서울·평양	1242명
4차	2002.4.28~5.3	금강산	849명
5차	2002.9.13~18	금강산	875명
6차	2003.2.20~25	금강산	850명
7차	2003.6.27~7.2	금강산	899명
8차	2003.9.20~25	금강산	942명
9차	2004.3.29~4.3	금강산	969명
10차	2004.7.11~16	금강산	957명(비공식)

“아들 다시 만난다면 날아라도 갈텐데”

북녘 자녀 만나고 와 수개월만에 사망하기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일지

이산의 한, 가슴에 묻은 부모자녀 상봉

연재호 기자 news21@naeil.com

“기차 양반, 우리 아들 한번만 더 만나게 해주세요. 2박3일만 (상봉행사일) 하니 별 말도 못했어요. 만나서는 기력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애기도 많이 못했습니다.”

지난해 2월 30여년만에 작은 아들을 만난 박규순(77) 할머니는 기차와의 통화 내내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로 힘없이 말했다. 몸져누운 채로 전화를 받는 듯한 박 할머니의 목소리에서는 아들 두 명이 모두 납북됐던 지난 72년 이후의 고통과 한과 고스란히 전해져왔다.

박 할머니는 “다리만 좀 아플 뿐 다른 곳은 건강하다”며 “아들을 다시 만나려 간다면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 아들 김태준(50)씨와 재상봉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할머니는 “2개월전에 어디에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다시 만나게 해주려는 것 아니냐”면서 “소식이라도 들으면 안 좋겠냐”고 희망적인 반응을 했다.

오랜 세월 오매불망 보고파하던 아들을 만나고 돌아온 어머니 중에는 생명의 끈을 놓아버린 경우도 있

었다.

지난해 2월 50여년만에 북측 아들 립동규(70)씨를 만났던 김금남 할머니는 96세를 일기로 같은 해 7월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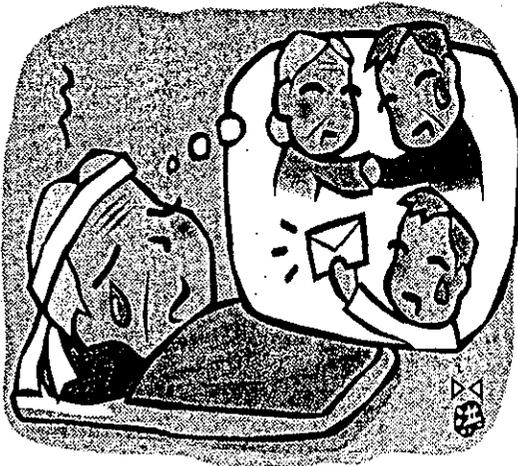
고인의 며느리는 “시아며남이 아들을 만나고 돌아오신 후 소원풀이했다고 좋아하셨다”며 “한 달을 앓다가 끝내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생전에 “통일만 되면 원도 한도 없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김 할머니는 상봉행사장에서 50여년만에 아들을 만난 날 저녁 만찬도중 쓰러지는 등 평소에도 고혈압으로 고생을 해왔다.

아들을 만나기 전에는 흥분을 가리앉히지 못해 며칠간 식사를 거르기도 했던 김 할머니는 이제 영원한 안식처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오말신 할머니도 16년전 납북된 북측 아들 김상섭(54)씨를 지난해 9월 만난 후 3개월만에 이승과의 인연을 끊었다.

김 씨의 남측 형 상규(57)씨는 “지난해 12월23일 암으로 돌아가셨다”며 “어머니께서 동생을 만나고 돌아가셨으니 어머니 소원은 푸신 것 같



다”고 말했다. 상규씨는 “어머니 49세를 치를 때 동생 생각이 많이 났다”며 “떠나볼 수 없는 형제애를 아쉬워했다.”

북녘에 부모를 두고 온 자녀의 마음도 역시 편치 못하다.

지난해 9월 8차 이산가족상봉행사에서 북측 어머니 박옥순(81) 할머니와 만난 임석주(63)씨는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몇 달 동안 마음이 아파 고생했다”며 “지금은 많이 안정됐지만 동생과 만날 때마다 어머니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51년 친정에 잠시 다녀오겠다던 어머니는 그 길로 행방불명돼 임 씨 형제와 50여년 이산의 한을 남기게 됐다.

헤어질 때 어머니 얼굴도 알지 못하던 임 씨의 동생 승주(58)씨는 지난해 9월 작별상봉에서 “어머니”를 외치며 박 할머니의 한복 치마자락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8차 상봉행사에서 북의 어머니 북점순(93) 할머니를 만났던 남측 아들 김성태(75)씨는 “지금도 자꾸만 어머니 생각이 나서 치러리 만나지 않는 게 좋지 않았겠는가하고 생각한다”며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해 늦게 나오셔서 얘기도 많이 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김 씨는 “이번에 10차 이산가족상봉행사를 한다니 어머니 생각이 더 간절하다”고 말했다.☞

■ 고향방문단(85.9.20~23)
-남측 35명 북측가족 45명 상봉
-북측 30명 남측가족 51명 상봉

■ 1차 이산가족방문단(00.8.15~18)
-북측 100명 남측가족 750명 상봉
-남측 100명 북측가족 218명 상봉

■ 2차 이산가족방문단(00.11.30~12.2)
-북측 100명 남측가족 770명 상봉
-남측 100명 북측가족 254명 상봉

■ 3차 이산가족방문단(01.2.26~28)
-북측 100명 남측가족 800명 상봉
-남측 100명 북측가족 240명 상봉

■ 4차 이산가족상봉행사(02.4.28~5.31)
-남측 99명 북측가족 183명 상봉
-북측 100명 남측가족 466명 상봉

■ 5차 이산가족상봉행사(02.9.13~18)
-북측 100명 남측가족 455명 상봉
-남측 99명 북측가족 221명 상봉

■ 6차 이산가족상봉행사(03.2.20~25)
-북측 99명 남측가족 461명 상봉
-남측 99명 북측가족 191명 상봉

■ 7차 이산가족상봉행사(6.27~7.2)
-남측 110명 북측가족 217명 상봉
-북측 100명 남측가족 472명 상봉

■ 8차 이산가족상봉행사(9.20~25)
-북측 100명 남측가족 453명 상봉
-남측 143명 북측가족 246명 상봉

■ 9차 이산가족상봉행사(04.3.29~4.3)
-남측 147명 북측가족 235명 상봉
-북측 100명 남측가족 486명 상봉

■ 10차 이산가족상봉행사(7.11~16)
-북측 100명 남측가족 476명 상봉
-남측 149명 북측가족 237명 상봉

“못 나눈 얘기 한스러워 한달 동안 앓아 누워”

상봉 당시 나눈 사진 보며 아쉬움 달래

부부·형제 상봉

“2박3일 내내 만나면 들이 손만 잡고 울기만 했죠. 그렇게 지내다 다시 헤어지니 할 말을 다 못해서 그런지 돌아와서 한달 동안 앓았어요. 54년만에 만났으니 할 말이 좀 많았겠소. 하지만 속 얘기는 거의 하지 못했네요.”

지난해 2월 6차 이산가족상봉 행사에서 북측 남편 남궁교(77)씨를 만난 박간성(71) 할머니는 짧은 상봉기간에 속깊은 얘기를 하지 못한 아쉬움에 몸져 누고 말았다.

이산의 한과 못다 이룬 사랑이 뱃속까지 사무친 박 할머니는 “헤어질 때 뱃속에 있던 딸이 주는 거라며 가락지를 건네자 그 양반이 기가 막힌지 허, 허, 허 이렇게 세번 웃더라”며 담담하게 상봉 뒷얘기를 전했다. 또 “남편이 만나자마자 ‘만나줘서 고맙다’고 세번 연속 얘기했다”며 “남편이 선물이라고 북에서 난 아들과 찍은 사진 한 장 쥐 섭섭했다”면서 반세기 한을 작은 원망으로 달랬다.

지난해 6월 7차 상봉행사 당시 북측 남편 리규태(77)씨와 만났던 곽호임(74) 할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짧은 상봉기간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을 아직도 속상해하고 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곽 할머니는 행사 둘째 날 삼일포 참관에 가지 못했고 마지막날 작별상봉도 급작스런 건강악화로 참여하지 못한 채 남쪽으로 후송됐다. 50여년만에 남편을 만난 정신적 충격 탓에 곽 할머니는 3주일 이상 입원해 있었다.

가족들은 곽 할머니가 “다른 이산가족들 상봉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 아파하며 혹시 개성공단에 가면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면서 상봉 당시 건네받았던 사진과 편지를 꺼내 보며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만을 기다리며 반세기를 수절해 온 북측 아내 권순애(76)씨를 지난해 2월 만나고 온 조창환(76) 할아버지는 “아니 갔던 것만 못하다”며 북녘의 아내와의 짧은 만남을 안타까워했다. 조 할아버지는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감시원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녀 말도 제대로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형제자매를 만났던 이산가족들은 만남의 기쁨에 더 무게를 뒀다.

6차 상봉행사에서 북측 여동생 김기원(68)씨를 만났던 남측 상봉자 김희원(73)씨는 “동생이 보고싶을 때마다 자신이 출연했다며 건네준 가극 ‘피바다’ 비디오테이프를 돌려본다”며 “굶지 않고 비교적 잘 살고 있다니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인민화가인 형 리근화(75)씨를 만났던 동생 근무씨는 “만났을 때는 너무 반갑고 형님 얼굴이 좋아 보여 울지 않았는데 집에 와서 형님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나더라”며 “다시 한번 만나서 못 다 나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주소조차 모르니 편지도 못 쓰겠다”고 아쉬워했다.

/연재호 기자

이산가족 상봉 후 후유증 크다

불면·우울증 시달려

편지왕래·고령자 고향방문 절실

상봉 후 대책

수십년만에 가족을 만난 이산가족들이 짧은 상봉 후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어 편지왕래 확대, 면회소 설치, 고령자 고향방문 등 후속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타게 찾던 부모와 형제, 남편과 부인을 반세기만에 만난 이산가족들은 상봉에 대한 기쁨보다는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할 수 없다는 절망감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불면증이나 우울증, 의욕 상실 등에 시달리고 있다.

고령의 이산가족의 경우, 상봉 후 수개월만에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

상봉을 하지 못한 이산가족도 오랜 세월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

일천만이산가족재추진위원회 이재운 위원장은 "이산가족 상봉 때마다 신청했다가 매번 떨어져서 비판 자살한 사람이 1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팜트리 클리닉 김선재 원장은 상봉 후 이산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일종의 상사병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며 정신의학적으로는 "적응장애나 우울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집신경정신과 유남재 원장은 "향수와 애뜻한 그리움이 채워졌다가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슬픔이 과대화된 상태"라며 "일시적인 증상이라면 괜찮지만 지속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과 적십자사측은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는 반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한 세미나도 개최하면서 기간이 공허감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있어도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상봉 후의 허탈감으로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현숙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는 "현재까지는 상봉 추진에 에너지를 투입해 왔다"며 "적십자사의 자원봉사조직이 전국에 깊이 뿌리내려 있으니 이산가족 상봉 후 사후대책이 뭐가 있을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독거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 이산가족을 상대로 정신과 치료 및 자원봉사자 상담 등을 알선하거나 상봉행사 직후 남쪽 집결지에서 일괄적인 정신감정을 받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김선재 원장은 "이산가족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화통화나 서신교환을 추진하거나 금강산 또는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을 방문토록 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박탈감이나 절망감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이산가족끼리 모임을 조직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와 면회소 건설에 따른 상시적인 이산상봉 기회를 만들기 위해 북측 당국과 협의중이다. 하지만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 이미 고령인 이산가족들이 얼마나 기다려 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재운 위원장은 "80세가 넘는 사람은 조총련 인사들의 고향 방문처럼 죽기 전에 부모님 산소에 성묘라도 하고 죽게 해야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겠냐"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남쪽 언론사 사장단 방문했을 때 80세 이상은 고향방문을 교환하자고 제안한 만큼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연재호 기자 news21@naeil.com

제1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신문기사집

연 합 뉴 스

❖ 연합뉴스 39

〈장관급회담〉 나흘간의 평양회담 전말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지난 4일부터 나흘간 평양에서 열린 제14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차기 회담인 제15차 장관급회담 일정만 합의한 채 막을 내렸다.

당초 이번 회담은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하는 등 남측의 정치지형 변화와 룡천참사에 대한 남측의 뜨거운 지원 분위기에 개최되는 것이어서 정부 안팎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4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북측 고위급 인사인 박봉주 내각총리도 룡천참사와 관련된 남측 각계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해 이번 회담에 '청신호'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회담 둘째날 오전 첫 전체회의에서 양측의 기초연설문이 공개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반전되기 시작했다.

남측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핵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강조한 뒤 지난 2월 13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장성급회담을 5월 중에 개최할 것과 제3차 6자회담에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합의할 것을 북측에 강력 요구했다.

이에 맞서 북측은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단과 이지스함의 동해배치 계획 철회를 주장하며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장성급 회담을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남측은 또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6.15를 즈음한 이산가족상봉행사 개최 ▲남북사회문화교류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함께 제시했으나 북측은 또 다시 한미 합동군사연습 등을 거론한데 이어 한 발 더 나아가 남측 범민련 관계자의 국가보안법 위반관련 처벌 중단과 탈북자의 미국방문 및 인터넷 방송 중단 등을 요구하며 남측 요구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양측의 입장차를 확인한 남측 대표단은 수석대표 및 실무접촉을 통해 이같은 이견들이 충분히 조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북측을 꾸준히 설득했다.

그러나 몇 차례의 접촉을 거듭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측은 의외로 주장을 굽히지 않는 강경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남측 대표단을 당혹케 했다.

더욱이 회담 마지막 날인 6일 밤부터 7일 새벽 사이 막판 집중조율을 통해 합의를 하곤 했던 종전 회담들과는 달리 6일 밤 단 한 차례의 수석대표 접촉 이후 '긴 밤'을 아무런 만남없이 허비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서울로 귀환해야 할 7일 오전 단 30분간 이뤄진 두 차례의 실무접촉에서 차기 장관급회담 날짜만을 잡는 것으로 이번 회담을 마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남북은 군사문제라는 암초에 걸려 정작 논의해야 할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남북교류와 관련된 실질적 논의는 전혀 하지 못하고 실망만을 안긴 채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honeybee@yna.co.kr
(끝)

한적, 내달 19~24일 이산가족상봉 대북제의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 대한적십자사(총재 이윤구)는 14일 6.15를 계기로 내달 19일부터 6일간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갖자고 북측에 제의할 예정이다.

한적 관계자는 13일 "이윤구 총재 명의로 내달 19일부터 이산가족 상봉을 열자는 전화통지문을 장재언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장 앞으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측이 먼저 이산가족 상봉을 열자는 제의를 해오기를 기다렸으나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우리가 먼저 전통문을 보내려고 한다"며 북측의 답변이 오는 대로 10차 이산가족 상봉 예비 후보자 300명을 컴퓨터 추천을 통해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주례 브리핑에서 "지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6월에 개최한다는데는 남북이 의견을 접근시켰다"며 "이번 주중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해 우리측에서 먼저 이산가족 상봉을 북측에 제의하겠다"고 말했다.

chsy@yna.co.kr

(끝)

한적, 내달 이산상봉 제의 전통문 발송

상봉후보자 300명 컴퓨터 선정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 대한적십자사(총재 이윤구)는 14일 오전 제10차 이산가족 상봉을 내달 19일부터 24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한적은 이날 이 총재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장재언 북한 적십자 회 중앙위원장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적은 10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선정을 위한 인선위원회를 개최하고 컴퓨터로 상봉 후보자 300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자는 남자 200명, 여자 100명이고, 연령별로는 90세 이상이 19명(6.3%), 80대가 152명(50.7%), 70대가 107명(35.6%), 60대가 22명(7.4%)이다.

후보자의 출신지역은 황해 91명, 평남 51명, 함남 43명, 평북 3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후보자 거주지는 각각 서울 96명, 경기 87명 등으로 가장 많았다.

한적 관계자는 "6월 19일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 전통문을 보내는 것과 함께 후보자를 선정했다"며 "북측이 우리측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다음주 중으로 후보자 건강검진과 후보자 200명 추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sy@yna.co.kr

(끝)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미적미적'>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 늦어도 올 상반기 중으로 착공식을 가질 예정인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은 지난해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금강산 온정리 조포마을에 6천평 규모의 면회소를 건설하고 건설 및 운영을 남측이 전담하는 조건으로 올 봄에 착공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적은 지난해 12월 말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남측이 작성한 두 가지의 면회소 계획 설계안을 전달했으며, 지난 1월 북측과 11층 규모의 계획 설계안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남북은 1월과 2월 금강산 실무접촉에서 건설부지 측량 및 지질조사와 관련한 기술적 사항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아직까지 지질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2월 이후 몇 개월째 면회소를 둘러싸고 남북 간에 아무런 접촉도 이뤄지지 않아 당초 올 봄에 계획했던 착공식은 올 상반기 중에도 성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면회소 설계는 80% 정도 진행됐으며 나머지 설계는 부지 측량과 지질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만 가능한 실정이다.

남측은 설계에 필요한 현지 측량과 지질조사의 대부분 과정을 남측 기술진이 담당하고 일부 만을 북측에 맡기려고 하는데 북한이 그에 대한 보상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질조사가 계속 늦어짐에 따라 한적은 6월말로 설계사업자와 계약을 중지해야 할 형편이다.

한적은 1단계 설계 및 착공 경비로 20억1천900만원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사용하고 있는데 설계지연으로 자칫 예산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지질 조사의 여러 과정 중 일부를 북측에 하도급을 주기로 했는데 북한이 대가를 많이 받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측이 걸으려는 돈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지질조사를 늦추는 원인은 조사지역이 군부 관할이어서 군부 등 관계기관 사이의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한적 관계자는 "북측이 담당할 지질조사 일부 과정은 1만5천달러이면 충분할 텐데 5만~6만달러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면회소를 하루 빨리 건설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적은 빠른 시일 내에 면회소 지질조사와 관련한 남북접촉을 갖자고 북측에 제의할 예정이다.

한적 관계자는 "지질조사를 못해 더는 설계를 진척시킬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양쪽 적십자사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 모여앉아 면회소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좀 더 기다려보다가 북측이 계속 미적거릴 경우 우리가 직접 현지에 들어가 지질조사 전 과정을 다 하는 쪽으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hsy@yna.co.kr

(끝)

남북, 내일 금강산서 적십자실무접촉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대한적십자사(총재 이윤구)와 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장 장재언)는 24일부터 이틀간 금강산에서 제4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갖고 제10차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에 대해 협의한다.

남북은 이번 접촉에서 10차 이산가족 상봉날짜를 확정하는 한편 올 상반기내로 이산가족 면회소 착공식을 가질 수 있도록 면회소 부지측량과 지질조사문제를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또 지난 달 이윤구 총재의 방북 때 논의한 조선적십자병원 등 의료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실무접촉에는 남측에서 이병웅 한적 총재특보 등 3명이, 북측에서는 최성익 조선적십자회 상무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적 관계자는 23일 "이번 접촉에서 10차 이산가족 상봉날짜가 확정되면 이번 주 안으로 상봉 후보자 200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룡천참사 지원과 관련, 그는 "남북이 구호회담을 열어 지원문제를 협의했고 꾸준히 지원물자를 복송하고 있어 더이상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측이 적십자병원 지원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적은 지난 14일 10차 이산가족 상봉을 다음 달 19~24일 금강산에서 실시하자고 북측에 제의했고, 북측은 17일 적십자 실무접촉을 남측에 제의했으며, 이에 따라 남북은 지난 20일 실무접촉 날짜를 확정했다.

chsy@yna.co.kr

(끝)

10차 이산상봉 날짜 확정못해

남북 적십자실무접촉 성과없이 종료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남북은 24~25일 이틀간 금강산에서 제4차 적십자실무접촉을 열었으나, 북측이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조선적십자병원 현대화 지원 등과 연계를 시도하는 등 양측간 입장 차이로 성과없이 마쳤다.

남북은 이날 접촉에서 10차 이산가족 상봉 날짜도 확정하지 못했다.

대한적십자사는 25일 금강산 적십자실무접촉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북측은 적십자병원의 현대화, 심장센터 건립, 식량 등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10차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켜 협의하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접촉에서 남측은 6.15를 계기로 10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와 더불어, 이산가족의 시범적 생사,주소확인과 서신교환사업의 확대 실시, 전쟁 중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사업의 시범실시 등을 제의했다.

남측은 북측의 병원 현대화 등 지원 요청에 대해 "적십자접촉에서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하며 북측이 요청한 사항은 한적의 능력이 닿는 범위에서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북측을 설득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추후 남북간 직통전화나 판문점 연락관 접촉 등을 통해 10차 이산가족 상봉 날짜 등 관련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적은 지난 14일 10차 이산가족 상봉을 다음 달 19~24일 금강산에서 실시하자고 북측에 제의한 바 있다.

chsy@yna.co.kr

(끝)

〈내달 남북 이산상봉 '물거품' 위기〉

대북지원 한적 '과욕', 북측 상봉연계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 대한적십자사의 무리한 대북지원 의욕이 자칫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금강산에서 열린 제4차 남북 적십자실무접촉에서 북측이 평양 동대원구역에 위치한 조선적십자병원의 현대화 및 심장센터 건립, 식량 10만t 등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10차 이산가족상봉과 연계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적십자간 접촉에서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문제만을 주로 논의하는 것이 사실상 관례로 굳어져 왔다.

북측이 당연하게 상봉을 논의하는 적십자간 접촉에서 대북지원을 이유로 행사를 무산시킨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여서 정부와 한적은 그야말로 곤혹스런 표정이다.

한적은 지난 14일 10차 이산가족 상봉을 다음달 19~24일 금강산에서 실시하자고 북측에 제의한 뒤 상봉 후보자 300명을 선정하고 건강검진까지 마쳤다.

그러나 이번 접촉에서 상봉날짜가 확정되지 않아 후보자 200명 선정 등 차후 일정이 중단된 상태다.

북측은 특히 이번 접촉에서 적십자병원 현대화와 심장센터 건립 지원은 한적 전, 현직 총재들과 약속이라며 심장센터 부지 준비도 끝낸 만큼 이를 적십자간 합의서로 못박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적십자간 접촉에서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며 "북측이 요청한 사항은 한적의 능력이 닿는 범위에서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설득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병웅 한적 총재특보는 27일 "적십자병원의 현대화는 남측의 중고장비 등을 지원하면 되지만 심장센터는 필요 장비구입에만 3천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적의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북측의 요구가 지나치게 방대하다"고 털어놓았다.

한적의 한 관계자는 "이윤구 총재가 지난 4월 방북 때 북측의 지원요청에 '알았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북측은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남북한의 용어차이로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북측 요구가 전,현직 한적 총재들의 지나친 대북지원 의욕에서 시작돼 충분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졌다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丁통일 “북일관계 속도내기 기대”-2(끝)

룡천참사 지원 현황과 관련, 정 장관은 "26일 현재 대한적십자사 중심의 정부 차원의 지원은 2천200만달러, 국내 민간단체의 지원은 2천만달러 등 모두 4천200~4천3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가 지원한 675만2천달러에 비하면 월등히 많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시범단지와 관련, 그는 "이달 25일 현재 42개 업체가 임주를 신청하는 등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며 "6월 5일 입주업체를 선정하고 6월 14일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업체들의 공장건설 사업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장관은 다음 달 2~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에 대해 "동해선 철도의 경우 우리측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어렵겠지만 경의선.동해선 도로 만큼은 공사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조기개통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관련, "6월 중에 사업을 시작하자는 데까지는 북한의 입장도 근접해 있었다"며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이산상봉 사업의 전망이 어두운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lye@yna.co.kr

jyh@yna.co.kr

(끝)

10차 이산상봉 7월 11~16일

방북 이윤구 총재, 북적 위원장과 합의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최선영기자 = 남북한은 오는 7월 11일부터 16일 까지 금강산에서 제10차 이산가족 상봉을 갖기로 합의했다.

지난 5일부터 룡천참사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대표단(단장 마르코 니스칼라 사무총장) 일원으로 방북한 이윤구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7일 평양에서 북한의 장재연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남북 양측 적십자사 총재는 또 이날 접촉에서 양측이 제기한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실무적 문제는 판문점 적십자 연락관 접촉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남북은 지난달 24~25일 이틀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적십자실무접촉을 가졌으나 북측이 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조선적십자병원 현대화지원 등과 연계를 시도하는 등 양측간 입장 차이로 상봉날짜도 확정하지 못한채 성과없이 마쳤다.

chsy@yna.co.kr

(끝)

남북, 생사확인의회 명단 내일 교환(종합)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대한적십자사(총재 이윤구)는 9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제10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생사주소확인 의뢰자 200명 명단을 교환한다.

북측에 전달될 남측 의뢰자 200명은 남자가 137명이고 여자가 63명으로 연령별로는 90대 7명, 80대 88명, 70대 82명, 60대 23명이다.

또 부부나 부모, 자식을 찾는 사람이 146명이고 형제자매를 찾는 경우가 54명으로 출신지역별로는 황해도가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안남도 29명 ▲평안북도 20명 ▲함경남도 27명 ▲함경북도 5명 ▲경기도 9명 ▲강원도 2명이었고 기타 지역이 49명이었다.

남북 적십자사는 이들 후보자가 의뢰한 가족들의 생사 여부와 주소를 확인해 이 결과를 담은 회보서를 24일 교환하고 28일에는 상봉을 하게될 남북 이산가족 각각 100명씩의 최종명단을 주고 받는다.

한적 관계자는 8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제10차 이산가족 상봉일정을 확정지었다"며 "그동안 상봉을 위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행사를 치르는데 전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부터 룡천참사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대표단 일원으로 방북한 이윤구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평양에서 북한의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과 만나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금강산에서 제10차 이산가족 상봉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jyh@yna.co.kr

(끝)

이산상봉 생사확인의회 명단 교환(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남북 양측은 9일 오후 3시께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제10차 이산가족 상봉(7.11~16.금강산)을 위한 생사.주소확인 의뢰자 200명의 명단을 교환했다.

양측은 이들 명단을 토대로 재남 및 재북 가족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해 24일 결과를 담은 회보서를 교환하고 28일에는 상봉하게 될 남북 이산가족 각각 100명씩의 최종명단을 주고 받는다.

특히 북측이 의뢰해온 상봉 후보자 명단에는 인민당 당수를 지낸 몽양 려운형씨의 조카 려운구(71)씨, 유명 탤런트 김무생씨의 외삼촌인 장경수(79)씨, 김민하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누나 김옥희(76)씨 등이 포함돼 상봉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북측이 전해온 생사주소확인 의뢰자 200명 중 최고령자는 86세의 김락유 할아버지였고 성별로는 남자가 158명이고 여자가 42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80대 5명, 70대 185명, 60대 10명이었다.

북측 의뢰자를 출신지역별로 보면 경상북도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32명 ▲충청남도 26명 ▲전라남도 25명 ▲충청북도 18명 ▲서울 17명 ▲강원도 17명 ▲전라북도 14명 ▲경상남도 8명 ▲일본 3명 ▲대구 2명 ▲제주도 2명 ▲함경남도 1명 순이었다.

반면 북측에 전달된 남측 의뢰자 200명은 남자가 137명이고 여자가 63명으로 부부나 부모, 자식을 찾는 사람이 146명이며 형제자매를 찾는 경우가 54명이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북측이 이번에 전달해온 명단에는 지난 3월 9차 상봉 과정에서 남측의 가족을 확인한 이산가족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그동안 축적된 이산가족 찾기 신청 등과 대조작업을 통해 생사.주소확인 작업을 신속하게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jyh@yna.co.kr

(끝)

〈문재인 北이모 만난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오는 7월 11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북한에 살고 있는 막내 이모를 만나게 된다.

북한 흥남 출신인 문 수석의 어머니 강한옥(77)씨는 5남매 가운데 장녀로, 6.25 전쟁 당시 남편(문용형.78년 작고)과 함께 월남했으며, 50여년을 이산가족으로 살아왔다.

문 수석은 북한의 외가 식구들을 만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해왔으며, 이번에 북한에 살고 있는 문 수석의 막내이모 강병옥(55)씨가 신청해 상봉이 이뤄지게 됐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이번 이산가족 상봉자 명단에 70대의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있어 처음에는 아닌 줄 알았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문 수석이 맞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kbeomh@yna.co.kr

(끝)

〈문재인 北이모 상봉하나〉(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오는 7월 11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북한 함경남도에 살고 있는 막내 이모를 만날 수 있을까.

북한 흥남 출신인 문 수석의 어머니 강한옥(77)씨는 5남매 가운데 장녀로, 6.25 전쟁 '흥남 철수' 당시 남편(문용형, 78년 작고)과 함께 5남매중 유일하게 월남, 50여년을 혈육과 떨어져 살아왔다.

문 수석은 북한의 외가 식구를 만나기 위해 이미 오래전에 이산가족 상봉신청을 한 상태이며, 이번에 북한에 살고 있는 문 수석의 막내 이모 강병옥(55)씨가 문 수석의 어머니와 조카인 문 수석에 대한 생사확인을 의뢰해 왔다.

대한적십자사는 현재 북측이 전달해 온 이산가족 후보자 200명의 남측 가족에 대한 생사 및 주소확인 작업을 진행중이며, 북측은 이를 토대로 내달 11일 금강산에서 상봉할 이산가족 100명을 추리게 된다.

오는 28일 남북이 서로 교환할 이산가족 상봉자 명단에 문 수석의 막내 이모가 포함될 지는 북측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반반이라는게 대한적십자사측 설명이다.

문 수석은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머니가 평생바라던 일이었는데 그동안 기회가 오지 않아 면회소 설치 이전의 상봉은 사실상 포기했었다"며 "아직 최종 명단이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뜻밖의 기회가 찾아와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이산가족 상봉자 명단에 74세의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있어 처음에는 아닌 줄 알았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문 수석이 맞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kbeomh@yna.co.kr

(끝)

남북, 10차 상봉후보자 생사확인결과 교환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남북 양측은 24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제10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각 200명씩에 대한 생사확인 회보서를 교환했다.

남측은 북측이 의뢰한 후보자 200명 중 188명의 재남가족 생사를 확인했으며 상봉거절 등을 제외하면 181명의 북측 이산가족이 남측의 가족을 만날 수 있다.

북측은 남측이 의뢰한 200명 중 160명의 재북가족 생사를 확인, 통보했으며 160명 중 사망자.건강이상자 등을 제외하면 108명이 북측의 가족과 만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측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북측 이산가족 중 최고령자는 모두 남측의 남편을 만나게 될 강채금(여.86)씨와 리후봉(여.86)씨였고 남측 이산가족 중 최고령자는 북측의 아들을 만나게 될 올해 96세의 임봉구 할아버지이다.

대한적십자사는 북측이 보내온 생사주소확인 결과를 토대로 직계가족 및 고령자 우선 원칙에 따라 초청 상봉대상자 100명을 선정, 내주초 북측과 명단을 교환할 예정이다.

jyh@yna.co.kr

(끝)

“성공한 남북교류협력은 이산상봉”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 우리 국민은 현재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 중 가장 성과가 높은 사업으로 이산가족상봉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0.1%는 이산가족 상봉, 23.9%는 남북철도·도로연결, 20.6%는 개성공단건설 순으로 남북교류협력 성과를 꼽았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의 돌파구라고 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성과로 지적한 응답자는 14.2%로 제일 낮게 나타났다.

현재 추진 중인 대북 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1.3%,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38.3%로, 전체의 74.6%를 차지한 반면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21.2%, '전면중단해야 한다'는 3.2%에 그쳤다.

인도적인 대북지원은 '현재 수준이 바람직하다'가 45.6%로 가장 높았고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9.1%였으며, 전면 중단은 2.8%에 불과했다.

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66.4%로 지난 3월 1차 조사(67.1%)와 별 차이가 없었다.

정부의 북핵문제 대응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 대응하고 있다'가 47.5%, '잘 대응하고 있다'가 5.1%로 긍정적인 응답이 52.6%였으며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부정적 응답 45.1%(매우 잘못 7.5%, 대체로 잘못 37.6%)에 비해 조금 앞섰다.

지난 23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3차 6자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별다른 성과 없이 핵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56.3%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북·미 타협으로 북핵문제의 단계적 해결이 합의될 것'이라는 응답은 35.8%였다.

이와 함께 응답자 86%는 주한미군을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9.1%가 '매우 필요하다', 56.9%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전혀 필요없다"와 "별로 필요없다"는 2.1%와 11.5%에 각각 그쳤다.

주한미군이 필요한 이유로는 '북한의 대남도발 억제기능'이 29.5%, '자주국방의 어려움'이 24.5%, '해외자본 이탈 등 경제불안'이 23.8%, '동북아지역의 안정군 역할 수행'이 21.4%의 순으로, 모든 항목에 걸쳐 20%대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민주평통은 이에 대해 주한미군이 필요한 이유로 우리 국민은 어느 특정 요인을 중시하기 보다는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이후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협력적 자주국방과 관련해 응답자 상당수가 '현 국방예산 내에서 자주국방의 토대 구축에 주력'(45.2%)하거나 '국방예산의 점진적 증가내에서 단계적으로 실현'(35.4%)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관계강화보다는 '현 수준 유지'(58%)와 '대미 의존에서 벗어날 필요성'(29.7%)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주한미군 감축으로 안보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은 18.8%에 불과했다.

chsy@yna.co.kr

(끝)

문재인 수석, 北이모와 상봉

남북 10차상봉 명단 교환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오는 7월11~16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1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중 북한에 살고 있는 막내 이모(강병옥.55)를 만난다고 정부 관계자가 28일 밝혔다.

북한 흥남 출신인 문 수석의 어머니 강한옥(77)씨는 5남매중 장녀로, 한국 전쟁 당시 남편(문용형.78년 작고)과 함께 월남했으며, 50여년을 이산가족으로 살아왔다.

문 수석은 북한의 외가 식구들을 만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해오다 이번 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때 금강산을 방문, 함경남도에 살고 있는 막내 이모와 상봉하게 됐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북측이 전달해 온 이산가족 후보자 200명의 남측 가족에 대한 생사 및 주소확인 작업을 끝내 북측에 송부했으며, 북측은 이를 토대로 금강산에서 상봉할 이산가족 100명을 선정, 대한적십자사에 통보해왔다.

최종명단에는 인민당 당수를 지낸 몽양 려운형씨의 조카 려윤구(71)씨, 유명 텔런트 김무생씨의 외삼촌인 장경수(79)씨, 김민하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누나 김옥희(76)씨 등이 포함돼 있다.

남측 방문단중 최고령자는 허유정 할머니(97)로 북측의 아들 부부와 손자녀 등을 만나게 되며, 북측 최고령자는 김동신 할아버지(84)로 남측에 있는 누나와 조카 등을 만나게된다.

남측 상봉단은 성별로는 남자 65명 ,여자 35명이며 연령별로는 90세 이상 4명, 80대 43명, 70대 45명, 69대 이하 8명이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 황해도가 31명으로 가장 많고 ▲평남 16명 ▲경기 14명 ▲함남 13명 ▲평북 11명 ▲강원 6명 ▲전남 3명 ▲충북 2명 ▲함북 1명 ▲대구 1명 ▲경북 1명 ▲제주 1명 순이다.

반면 북측 방문단은 성별로는 남자 73명, 여자 27명이며 연령별로는 80세 이상 2명, 70대 91명, 69세 이하 7명이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1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18명 ▲전남 14명 ▲함북 9명 ▲충남 8명 ▲강원 7명 ▲인천과 제주, 함남, 일본이 각각 1명씩이다.

한편 남북 적십자사는 지난 9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제10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생사.주소확인 의뢰자 200명의 명단을 교환했으며 양측은 이 명단을 토대로 재남 및 재북 가족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해 24일 결과를 담은 회보서를 교환하고 28일 상봉하게 될 남북 이산가족 각각 100명씩의 최종명단을 주고 받았다.

duckhwa@yna.co.kr

(끝)

고대교수, 문수석 상봉 문제 제기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 유호열 고려대 교수가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오는 11일 금강산에서 북한에 거주하는 이모와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고대 북한학과 유 교수는 4일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글을 띄워 "북한에서 (문수석) 남쪽의 유명 인사이고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라고 생각해 이모님을 찾아내 상봉을 시키는 것 아니냐"면서 "그렇다면 명백한 대남 공작인데 공작자로서 어떻게 처신하는게 좋을 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또 "문수석이 수차례 상봉시도를 하다 안됐는데 이번엔 북쪽 이모가 먼저 문수석의 어머니를 찾아서 상봉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문수석은 남쪽에서 출생했는데 어떻게 이모가 문수석을 알게 됐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수석은 "지금의 남북관계는 70년대처럼 공작으로 무엇이 되는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만일 이것이 논란이 된다면 내가 상봉장소에 가지 않으면 되는 일이지만 꼭 그렇게 논의가 흘러가야 하는지 답답한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cbr@yna.co.kr

(끝)

“‘문수석 상봉 문제제기’ ..상봉행사 의미 훼손”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통일부는 5일 유호열 고려대 교수가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이산가족(이모) 상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의미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이산가족상봉 대상자는 남북이 각각 독자적인 과정을 거쳐 선정하고 이 과정에서 상대측의 선정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통일부는 자료를 통해 "남측에서 자료를 제공한 뒤 거꾸로 북측에서 신청하는 형식을 갖도록 사전에 조율된 것 같다는 주장은 근거도 없는 것"이라며 "북측의 생사확인 의뢰자는 대개 월북자가 남한에 살아있는 가족을 찾는 경우이나 문 수석 가족과 같이 월남자 가족인 경우도 그간 5건의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자료는 또 "북측이 확인을 의뢰한 남측 가족에 유명인사가 포함된 사례도 그간 김민하 전 평통 수석부의장, 맹형규 의원 등 정치인과 연예인 김무생씨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jyh@yna.co.kr

(끝)

올 상반기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537명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올해 상반기 이산가족찾기를 추가로 신청한 사람은 총 537명으로 집계됐다.

6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1988년 이후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는 총 12만3천369명으로 이중 2만2천239명이 사망했고 10만1천130명이 생존해 있으며 올해 상반기 새로 신청한 사람은 537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70대가 4만3천401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만2천295명 ▲80대 2만882명 ▲50대 이하 1만2천217명 ▲90대 이상 2천335명 순이었다.

출신지역으로는 황해도가 2만4천480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안남도 1만4천375명 ▲함경남도 1만2천706명 ▲평안북도 8천910명 ▲경기도 4천425명 ▲함경북도 3천523명 ▲강원도 2천3명 순이었고 기타지역도 3만708명에 달했다.

찾는 가족을 관계별로 보면 부부.부모.자식이 4만3천484명이었고 형제.자매.동생을 찾는 신청자가 4만1천651명, 3촌 이상의 가족을 찾는 신청자가 1만5천995명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6만7천791명으로 여자 3만3천339명에 비해 두배 이상 많았다.

jih@yna.co.kr

(끝)

〈조문문제로 남북관계 흔들리나〉

남북간 냉각관계 조만간 정상화될듯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김일성 주석 사망 10주기 조문문제를 놓고 남북 관계가 흔들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최근 남북간 화해분위기가 돌연 냉기류로 바뀌는 듯한 모습을 띤 것은 정부가 고(故) 문익환 목사의 미망인인 박용길 장로를 비롯한 추모대표단의 방북에 대해 '국민감정' 등을 감안해 자진취소를 유도한 데서 비롯됐다.

이러한 정부 조치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강도높게 나타났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체제를 부정하고 우리를 대화상대로 하지 않으려는 자들과 더 이상 상종할 의사가 없다. 북남의 초보적인 인사내왕도 가로막는 자들에게는 내왕의 길을 열어 줄 생각이 없다"고 강력 반발한 것이다.

특히 북측은 민간단체의 평양 방문 연기를 통보하고 오는 13일부터 속초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해운실무접촉을 연기한다고 발표, 남북관계 발전에 먹구름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북측의 이러한 강경입장에 대해 당혹스런 표정을 지으면서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의 입장에서는 김일성 조문이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시적인 차질은 있겠지만 (남북간 냉각관계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북측은 표면적인 반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달 11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10차 이산가족상봉행사의 준비작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봉행사의 사전조율을 위해 8일 금강산에 들어간 선발대가 북측 관계자들과 함께 행사장소를 답사하는 등 행사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대한적십자사라는 민간단체의 사업이고 인도적 행사라는 점에서 차질이 생기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북식량차관 제공 등의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북측도 조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이 김일성 주석에 대한 조문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노출했다 남북관계를 다시 개선하는 쪽으로 대남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남측 민간단체에 통보해온 방북연기서한에서 '향후 협력'을 적시하고 있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 때 남측 정세 불안을 이유로 남북관계 일정을 잠시 미뤘다가 슬그머니 정상화시킨 전례 등에 비춰 장기전 형태의 냉각관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달 13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남북해운실무접촉이 부속합의서 문제 등을 논의할 뿐 시급한 현안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도 북측의 향후 태도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jyh@yna.co.kr

(끝)

10차 이산상봉 1진 속초 집결(종합)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남측 상봉단 1진 이산가족 476명이 제10차 남북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행사에 앞서 10일 오후 강원도 속초 대명콘도에 집결, 공식 상봉일정에 들어갔다.

이산가족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방북 안내교육을 받고 가족상봉시 행동요령과 상봉일정, 최근 남북관계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남측 상봉단 이산가족들은 이 곳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11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북측 지역인 금강산에서 재북 혈육을 만나게 된다.

남측 상봉단은 이세웅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단장으로 이산가족 476명과 지원 인원 79명, 취재단 31명 등으로 이뤄졌다.

남북 적십자사의 합의에 따르면 남측 상봉단 이산가족은 11일 육로로 금강산 해금강호텔에 도착해 점심식사를 마친 뒤 오후 4시 온정각에서 단체상봉을 시작으로 동석만찬 등 4시간 동안 꿈에 그리던 북측 가족을 만날 예정이다.

또 12일에는 해금강호텔에서 개별상봉을 갖고 김정숙휴양소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한 뒤 삼일포를 함께 관광하며, 13일 오전에는 온정각에서 1시간 동안 작별상봉을 통해 짧은 만남의 아쉬움을 남긴 채 오후 1시 육로를 통해 남쪽으로 돌아온다.

이번 행사기간에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북한 흥남이 고향인 어머니 강한옥(77)씨와 함께, 북한에 살고 있는 막내 이모 강병옥(55)씨를 상봉한다.

이날 어머니와 함께 대명콘도에 도착한 문 수석은 "우리 어머니께서 상봉을 하는 것이고 나는 상봉 동반가족으로 가는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6남매중 맏이인 어머니께서 맨 막내 형제이지만 이모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동안의 한을 푸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모님의 소식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문 수석은 "저희가 직접 보거나 듣지는 못했지만 외국에 사는 친지들 가운데 일부가 북한을 방문했기 때문에 조금씩 듣기도 했다"며 어머니의 남자형제들은 모두 돌아가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남측의 여재구씨는 인민당 당수를 지낸 몽양 려운형 선생의 조카 윤구(71)씨, 유명 탤런트 김무생씨는 외삼촌인 장경수(79)씨와 각각 만난다.

또 당초 상봉단의 최고령자였던 96세인 남측의 임봉구 할아버지가 건강상 이번 상봉에 참가하지 못함에 따라 부인인 주애기(95)씨가 이번 상봉의 최고령자로 73세의 북측 아들 승호씨와 이산의 한을 달랠 예정이다.

이어 남측 상봉단 2진 이산가족 100명은 13일 속초에 모인 뒤 14일부터 16일까지 금강산에서 재북가족 239명과 상봉하게 된다.

(끝)

<10차 이산상봉 속초집결 이모저모>

(속초=공동취재단) 11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할 남측 상봉 가족들은 10일 오후 집결지인 강원도 속초시 대명콘도에 속속 도착해, 등록을 한 뒤 두 시간 남짓 방북 교육을 받았다.

집결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한 텔런트 김무생씨는 "외삼촌(장경수.79)은 어머니 형제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분"이라며 "부모님 뵈는 것처럼 가슴이 설렌다"고 말했다.

김씨가 등록을 하는 동안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부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김씨의 사인을 받거나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몰려 들어 유명세를 실감케 했다.

한적 관계자가 "적십자 홍보대사를 꼭 맡아달라"고 요청하자, 김씨는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며 즉석에서 수락했다.

반세기만에 북으로 간 남편 윤병철(80)씨를 만날 예정이었던 남쪽의 아내 최성옥(82)씨는 지병인 천식으로 인해 상봉행사에 참여하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딸 순원(58)씨는 "아버지를 만나면 사진을 많이 찍어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찍게 해줄 지 모르겠다"며 미리 걱정을 하기도 했다.

순원씨는 "사흘간 아버지를 몇 차례나 만날 수 있느냐"며 "내가 다섯 살때 아버지와 헤어졌는데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 지, 서먹서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저런 생각으로 어젯밤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말했다.

아흔다섯 동갑인 노복금.주애기 할머니는 전쟁 때 북으로 간 아들을 만나기 위해 월계리로 상봉길에 오른다. 비교적 정정해 보인 노 할머니는 열아홉살때 나간 큰 아들(임승호.73)를 만난다.

"내가 큰 아들 만나려고 이렇게 오래 사는 것 같다"며 "어려서 사고로 엄지손가락을 조금 잘렸는데 그것만 확인하면 내 아들인지 알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곁에 있던 딸 채옥(75)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흔여덟인 아버지가 아직 붓글씨도 쓰실 정도로 건강하셨는데 큰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는지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건강이 나빠져 오시지를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주 할머니는 주 할머니는 6.25가 터진후 당시 서울의 중앙중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리강백(71)씨가 어느 날 돌아오지 않자 "2살된 아이를 업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다"고 회고했다. "어찌 (아들을) 알아볼 수 있겠나"라며 걱정하면서도 "강백이는 순하고, 말도 별로 없고, 명석했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50년만에 북으로 간 딸 리병희(70)씨를 만나는 어머니 문옥진(84)씨는 "딸이 헤어지기 전에 왕십리에 있는 방직회사에 다니며 가족을 도왔을 만큼 적극적이며 활발

한 성격이었다"며 "죽은 줄 알고 제사까지 지냈는데 살아있다니 그저 기쁠 뿐"이라고 말했다.

반세기 전 행방불명됐던 남편 리종화(77)씨를 만나는 부인 정희섭(76)씨는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을 54년만에 만나게 돼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다"고 말했다.

생후 두살, 2개월 때 아버지와 헤어진 두 딸은 "사진으로만 보던 아버지를 실제 만날 일이 꿈만 같다. 10년전부터 미국 등을 통해 아버지의 행방을 수소문 해왔는데 이제사 만나게 됐다"며 감격스러워했다.

자원봉사자 중 최고령인 심희섭(74)씨는 "28년전부터 자원봉사를 해왔다"며 "이산가족을 돕는 일은 언제나 기분이 좋다"고 했다. 심씨는 "남북간 교류가 끊기지 말고 이산가족들이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남북 양방 대표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콘도 1층 로비에 마련된 외환은행 임시특별환전소에는 환전을 하려는 이산가족들로 북적거렸다. 서울 본점에서 출장을 온 2명의 직원은 "손익분기점이 5만달러는 돼야 하는데,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행사 때엔 3~4만달러 정도 환전했다"며 "올해는 원화 강세로 환전 액수가 다소 늘 것 같다"고 말했다.

(끝)

-금강산상봉- 오후 남북이산가족 만나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 471명이 11일 오후 금강산 온정각에서 단체상봉을 시작으로 반세기 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만난다.

이세웅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남측 상봉단 1진은 오전 8시 30분 강원도 속초시 대명콘도를 출발, 오전 11시 30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동해선 도로를 이용해 낮 1시께 금강산의 해금강호텔에 도착한다.

숙소에 여장을 푼 남측 상봉단은 간단한 점심식사를 마치고 단체상봉장인 온정각으로 이동, 두 시간 동안 북측 가족들을 만나고 오후 7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환영 만찬을 갖는 등 네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해후한다.

이번 상봉에서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북한 흥남이 고향인 어머니 강한옥(77)씨와 함께, 북한에 살고 있는 막내 이모 강병옥(55)씨를 상봉한다.

남측의 여재구씨는 인민당 당수를 지낸 몽양 려운형 선생의 조카 윤구(71)씨, 유명 탤런트 김무생씨는 외삼촌인 장경수(79)씨와 각각 만난다.

또 당초 상봉단의 최고령자였던 남측의 임봉구(96) 할아버지가 건강상의 이유로 상봉에 참가하지 못함에 따라 부인인 노복금(95)할머니가 이번 상봉의 최고령자로 73세의 북측 아들 승호씨와 이산의 한을 달랠 예정이다.

주애기(95) 할머니도 이번 상봉의 최고령으로 6.25당시 중학교 5학년에 재학중이던 북측의 아들 리강백(71)씨를 만나 잃어버린 50여년의 시간을 더듬는다.

한편 이번 상봉에서 북측의 형 리태근(71)씨를 만날 예정이던 남측의 동생 이종근(68)씨는 부정맥 및 위천공으로, 북측의 동생 김희주(71)씨를 상봉하려던 남측의 형 김희양(74)씨는 심근경색 초기증세로 각각 상봉을 포기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또 북측의 삼촌 라인학(71)씨를 만날 예정이던 남측의 조카 나근식(53)씨와 고영님(52)씨는 라씨의 제수인 모친이 갑자기 별세해 상봉을 포기했다.

(끝)

-금강산상봉-단체상봉, 50여년 회한풀어(종합)

'조문논란'에도 이산가족행사 예정대로 진행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김일성 주석의 10주기 조문 문제로 일부 민간 단체의 방북과 당국간 회담이 연기되는 등 남북관계가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11일 오후 단체상봉을 시작으로 예정대로 진행됐다.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 471명은 50여년간 헤어졌던 북측의 가족 100여명을 만나 반세기가 넘은 이산의 한을 달랬다.

올해 95세로 남측 상봉단 중 최고령인 노복금 할머니는 큰 아들 림승호(73)씨를 만나, 어릴 적 사고로 잃은 엄지 손가락을 어루만지며 잃어버린 세월을 회상했다.

승호씨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 안 계셔"라고 묻자 누나 채옥(75)씨는 "아버지가 왜 안 계셔. 못 오셨지"라고 대답했다.

림씨의 아버지 임복구(97)씨는 아들의 생존소식을 전해듣고 흥분하는 바람에 건강이 나빠져 이번 상봉에 참가하지 못했다.

노복금 할머니와 동갑인 남측의 주애기 할머니는 헤어질 당시 서울 중학교 5학년 때 다니던 소년에서 백발의 노인이 된 아들 리강백(71)씨를 만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만 흘렸다.

청와대 문재인 시민사회수석은 북한 흥남이 고향인 어머니 강한옥(77)씨와 함께 생면부지의 막내 이모 강병옥(55)씨를 만나 눈길을 끌었다.

문 수석의 어머니 강씨는 흥남에서 거제도로 피난가며 헤어진 막내 동생 병옥씨에게 전쟁 중에 헤어진 나머지 형제들의 안부를 물으며 잃어버린 시간을 확인했다.

문 수석은 "어머님이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이모를 만나 영원의 1만 분의 1이라도 풀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상봉단에는 6공화국과 문민정부 당시 각각 청와대 의전수석과 안기부 해외담당 차장을 지낸 이병기(58)씨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관심을 모았다.

이씨는 6.25 전쟁 당시 북으로 간 고모 리순덕(71)씨를 만났다. 순덕씨는 전쟁 당시 경기여고 3학년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인민군 부상자 치료를 돕다가 북으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으며, 북한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김형직사범대학 당역사 강좌장을 지냈고 현재 인민대학습당 연구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씨는 순덕씨 큰 오빠의 아들로 이번 상봉단에 부인 심재령씨, 남한에 사는 큰 고모 이희갑(79)씨, 희갑씨의 아들과 손자 등과 함께 참가했다.

인기 탤런트 김무생씨는 이날 어머니 형제 중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북쪽의 외삼촌 장경수(79)씨를 만나 생전 어머니의 모습을 전했다. 김씨는 "외삼촌이지만 꼭 어머니를 뵈는 것 같다"며 외삼촌을 얼싸 안았다.

또 단체 상봉장에서 50여년만에 북측의 딸 리병희(70)씨를 만난 남측의 어머니 문옥진(84)씨는 "죽은 줄 알고 제사까지 지냈는데 살아있다니 그저 기쁠 뿐"이라며 딸의 손을 잡고는 눈을 줄을 몰랐다.

남측 상봉단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두 시간 동안 온정각에서 단체상봉을 가진 데 이어 1시간 휴식한 뒤 오후 7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환영만찬을 가졌다.

남북 이산가족은 12일 오전 금강산의 김정숙휴양소에서 개별상봉, 온정각에서 공동중식에 이어 오후에는 삼일포 공동관광 등의 일정으로 혈육의 정을 나눈다.

(끝)

〈금강산상봉〉 화제의 가족들(종합)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이번 상봉단에는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인기 텔런트 김무생씨가 포함됐고, 6공과 문민정부 당시 각각 청와대 의전수석과 안기부 해외담당 차장을 지낸 이병기씨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 문재인 수석 가족 = "이모님. 제가 조카 문재인입니다"

생면부지의 이모를 만난 문 수석은 서먹한 상태에서 상봉을 했지만 어머니와 이모의 얼싸안은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단체상봉이 시작된 오후 4시 이모 강병옥(55)씨가 남색 한복을 차려입고 상봉장에 모습을 나타내자 문 수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모를 자리로 안내했다.

문 수석의 어머니 강한옥(77)씨는 동생을 보며 "네가 병옥이냐"라고 물었고 곧바로 두 자매는 서로 얼싸 안고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물을 쏟아냈다.

한옥씨는 북받치는 감정을 추스르고 병옥씨와 밀렸던 대화를 풀어 나갔다.

특히 흥남이 고향인 한옥씨는 흥남 인근의 지도를 메모지 위에 그려가며 헤어질 당시 자신이 살던 곳과 작은 집 등을 소재로 이야기 꽃을 피우면서 잃어버린 50여년의 시간을 더듬어 갔다.

특히 6남매 중 맏이었던 한옥씨는 흥남의 성천강 건너 문씨 집안으로 시집오고 난 뒤 고향에 두고 온 부모형제 등 가족들의 소식을 물었고, 병옥씨로부터 "모두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문 수석은 어머니 한옥씨와 이모 병옥씨가 씩씩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며 간간이 눈시울을 붉혔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기도 했다.

문 수석은 "언제 어떻게 오셨느냐", "어디에 묵으시느냐"면서 이모에게 금강산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 지를 물었다.

문 수석은 단체상봉을 마친 뒤 소감을 묻자 "내 기억 속의 20년전 어머니의 모습과 너무 닮아 전혀 처음 뵈는 분 같지 않았다. 이렇게 100명씩 짙짙 만나야 하는 것이 너무 감질이 난다"며 "이산가족면회소가 시급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나보다 어머니가 가족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식구를 만나 그동안 쌓아왔던 영원을 1만 분의 1이라도 푸셨을 것"이라며 "이렇게 처음으로 북녘땅을 밟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문 수석의 상봉에는 북측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북측 관계자들은 남측 취재

진에게 문 수석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묻기도 했고, 방송 카메라와 정사진 카메라 등을 들이대며 문 수석의 가족 상봉에 관심을 나타냈다.

문 수석 가족이 상봉하는 탁자 주변에서는 늘 3~4명씩의 북측 관계자들이 상봉 장면을 지켜보기도 했고, 일부 북측 관계자들은 가족들이 조용히 만날 수 있도록 취재를 제한하기도 했다.

◇ 전 안기부 차장 이병기씨 가족 = 이씨는 6.25전쟁 당시 북으로 간 고모 리순덕(71)씨를 만났다.

리순덕씨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뒤 김형직사범대학 당역사 강좌장(주임교수급)을 지냈으며, 현재 인민대학습당 연구사로 근무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씨와 함께 상봉장에 나온 남쪽의 고모 이희갑씨는 동생 순덕씨에게 "엄마가 돌아가실 때 니 안보고 어떻게 죽느냐고 소리 소리 질렀다"고 말하고는 "너를 어떻게 (북에) 두고 가느냐"면서 오열했다.

이희갑씨가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테이블을 치는 등 흥분하자 딸 정운선(53)씨가 준비해온 우황청심환을 입에 넣어 주기도 했다.

순덕씨는 전쟁이 일어나자 경기어고 3학년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인민군 부상자 치료를 돕다가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함께 북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기씨는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를 하루 빨리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다"며 "큰 고모님이 동생을 생전에는 또다시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흥분하셨다. 헤어진 혈육을 한 번 만나고 더 이상 상봉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다. 큰 고모님이 돌아 가셔서 동생 생각으로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 탤런트 김무생씨 가족 = "네가 무생이구나. 너희 어머니가 아들이 없다가 너를 낳아서 이름을 없을 '무', 날 '생'이라고 짓지 않았니".

북한에 사는 김씨의 외삼촌 장경수(79)씨는 김씨를 만나자 말자 이렇게 말하고는 얼싸 안았으며, 김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외삼촌 절 받으세요"라며 외삼촌 동생인 장경호(46)씨와 함께 바닥에 엎드린 뒤 큰 절을 올렸다.

장경수씨는 자신의 조카이자, 김씨의 누나들인 금련(74), 정희(71)씨의 얼굴을 번갈아 어루만지며 "너무 너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장씨는 자리에 앉은 다음 "우리 절대로 울지 말고 차근차근 이야기하자"고 한 뒤 "6.25전쟁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위대한 장군님 품에 안긴 이후부터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했는 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단체상봉 내내 외삼촌의 손을 어루만지며 "이렇게라도 어머니를 느끼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외삼촌이 내놓은 옛날 사진을 보며 "제가 어릴 때 외삼촌과 인천 월미도로 놀러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외삼촌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연락을 받은 뒤 그 때 생각으로 가슴이 설레 매일 밤을 설쳤다"고 말했다.

김씨는 단체상봉후 "내가 네살 때 어머니가 중병을 얻어 돌아가셨는데 당시 외삼촌이 어머니를 살리고자 거의 매일 헌혈을 했다. 그런데 내 이름이 한자로 '茂盛'인데 외삼촌은 '無生'으로 잘못 알고 있더라"고 덧붙였다.

◇ 8남매 생존 가족 = 이번 상봉단에는 6.25전쟁 등 그 험한 세월 속에서도 남과 북에 8남매가 모두 살아있는 가족도 있었다. 박기분(여,77)씨 등 7남매는 남쪽에, 그리고 동생 영돈(71)씨는 북한에 살고 있는 것이다.

기분씨 가족들은 북의 동생 영돈씨를 만나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끝내 눈물을 흘렸다.

영돈씨는 누나와 여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자꾸 울면 얘기를 못하잖아"라며 "아버님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느냐"고 물었으나, 돌아가셨다는 대답에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박씨 가족은 남쪽 상봉자 수가 5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가족회의를 통해 상봉에 참가할 사람을 결정했다. 오지 못한 자매 2명은 눈물을 펄펄 쏟았다고 한다.

영돈씨는 지난 4월 대규모 폭발사고가 난 평북 룡천에 살고 있다고 해 남쪽 가족들을 놀라게 했다.

영돈씨는 "당시 유리창이 다 깨지는 등 피해를 당했으나 다행히 룡천역과는 9km 정도 떨어진 곳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복구가 상당히 진전됐다"고 전했다.

남측의 한 동생은 단체상봉후 "형님이 북에서 5남매를 낳고 가족, 친척들간에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등 잘 살고 있다고 말해 생각만큼 북한이 경직돼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끝)

-금강산상봉- “혈육들 정기적으로 계속 만나야”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남측 단장인 이세웅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는 11일 "오늘 이렇게 상봉하듯 간절하게 정기적으로 혈육들이 계속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재는 이날 오후 7시 금강산 온정각에서 진행된 환영만찬에서 만찬사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는 그 어떤 명분이나 이유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남과 북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북측 단장인 최성익 조선적십자회 상무위원도 만찬사를 통해 "이번 상봉을 통해 북과 남의 가족, 친척들은 혈육의 정과 숨결만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 새 것의 승리는 필연이며 거래의 속망인 통일이 결코 외침도 기다림도 아님을 피부로 절감했을 것"이라며 "오늘의 상봉이 영원한 상봉으로 되는 그것이 통일이고 이 상봉길이 바로 통일의 길과 잇닿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과 남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정신적 기둥으로 삼고 6.15 공동선언이 밝혀 준 길을 따라 '우리 민족끼리' 시대를 펼쳐 나가는 데서 선구자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끝)

-금강산상봉- 이틀째 가족별 상봉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상봉 이틀째인 12일 남북 이산가족 471명은 오전 10시부터 해금강호텔내 숙소에서 북측 가족 100여명과 가족별로 상봉을 한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남북 양측은 지난 봄 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가족들을 취재진에게 공개하지 않고, 가족들만의 오붓한 시간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 개별상봉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 이산가족은 2시간 동안의 개별상봉에 이어 오후 1시부터 김정숙 휴양소에서 2시간 동안 점심식사를 함께 한 뒤 오후 4시부터 2시간 삼일포 참관상봉에 나설 예정이며, 비가 올 경우에는 실내 교예공연을 관람하게 된다.

이어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온정각 휴게소 앞마당에서 작별상봉을 갖고 또 다시 기약없는 이별을 하게 된다.

이에 앞서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은 11일 단체상봉과 공동만찬을 갖고 50여년만에 재회한 나머지 감격의 눈물을 흘렸으며, 상당수 가족들은 밤을 지새웠다.

(끝)

〈금강산상봉〉 북, 조문문제에 질문공세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해 평양에서 나온 북측 취재진과 지원인원들은 김일성 주석의 조문문제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공세를 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대부분의 북측 관계자들은 고 문익환 목사의 부인 박용길 장로 등 추모 대표단의 방북이 무산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남측 관계자들은 "남한내 분위기가 아직 '조문방북'을 정부가 허용할 정도는 아니다"는 점을 설명했다.

북측 관계자들은 "조문은 인류의 문제인데 어째서 정치적 차원으로 다루느냐", "1994년 때도 조문 문제로 남북관계가 후퇴해 2000년에서야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조문을 막아놓고 남북관계가 어떻게 순탄하겠느냐"고 말했다.

일부 북측 이산가족 상봉자들은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일부 북측 행사 관계자는 "우리는 조문이 불허된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보고서를 상부에 올렸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이산가족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번 상봉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측 관계자들이 "남한 정부가 박 장로 등 추모대표단에게 조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방북해 조용히 행사를 참여하고 돌아올 것을 주문했으나 본인이 이를 거부해 방북이 취소됐다"고 설명하자 북측은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북측 관계자들은 또 "정 장관 취임으로 대북정책이 좀 더 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느냐", "한나라당 의원들은 앞으로 대북정책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 같느냐"는 등의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해 남측 관계자들이 "정 장관 취임 후 첫 외부행사 중 하나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임동원 특보를 만난 것인 만큼 화해협력의 기초를 강화해 갈 것이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앞으로 지켜보면 남북관계를 잘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자, 북측은 "결국 남북 화해협력이 대세 아니냐"고 답하기도 했다.

(끝)

-금강산상봉-개별상봉..즐거운 한때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중인 남측 상봉단 471명은 12일 오전 현대아산이 운영하는 해금강호텔 객실에서 북측 가족들과 개별상봉을 갖고 전날 단체상봉 등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다.

새벽부터 굵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북측 가족들은 예정보다 30분 가량 빠른 오전 9시30분 해금강호텔에 도착, 각각 남측 가족들이 대기하고 있는 객실로 올라가 낮 12시까지 두 시간 남짓 혈육의 정을 재확인했다.

남북 가족들은 금반지, 의류, 생필품, 화장품 등 남측 가족이 가져온 선물 보따리 등을 풀어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북측 천길봉씨의 남측 동생인 원덕(70), 길성(68), 길례(65), 근철(56)씨 가족은 길봉씨가 도착하기 전, 객실에 약식 제사상을 차려놓고 "오늘이 아버지 제삿날이라 큰 형님이 오시면 함께 제사를 지내려 한다. 아버지가 형님 절을 받으시려고 이날 돌아가셨나 보다"고 말했다.

이병기씨의 큰 고모 이희갑씨는 개별상봉을 앞두고 "동생이랑 하룻밤 같이 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똑같은 색깔의 잠옷을 두 벌 챙겨왔는데 입지 못하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이희갑씨는 "분홍 저고리에 남치마의 한복 두 벌을 갖고 왔는데 동생과 입고 사진을 함께 찍고 싶다"고 말했다.

탤런트 김무생씨는 개별상봉 직전 "어젯밤 잘 잤다. 한시라도 (외상촌) 얼굴을 더 보고 손을 더 잡고 싶을 뿐이다. 이번에 만난 북측 가족들과 최소한 전화라도 통화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이산가족들은 50여년만에 헤어진 가족을 만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잠을 설쳤으며, 연로한 이산가족들은 의무실을 찾기도 했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개별상봉에 이어 북측이 운영하는 김정숙휴양소에서 함께 점심을 한 데 이어, 오후에는 우천으로 당초 예정했던 삼일포 관광을 취소하고 평양교예단의 교예(서커스) 공연을 관람한다.

(끝)

〈금강산상봉〉 선물로 ‘혈육의 情’ 이어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전날 네 시간에 걸친 단체상봉과 환영만찬 등으로 반세기 동안 헤어졌던 이산의 아픔을 달랬던 남북 상봉단은 12일 오전 해금강 호텔 숙소에서 오붓한 가족상봉의 시간을 가졌다.

북측 림승호(73)씨의 어머니 노복금(95) 할머니는 개별상봉 전 "진짜 확인돼서 반갑다. 손 하나 보고 확인했지"라고 말했다. 림씨는 어릴 때 다쳐서 엄지 손가락 끝을 잃었다. 노 할머니는 모자 달린 파카, 시계, 내복, 생필품 등이 가득 담긴 검정 가방을 열어보이며 자랑하기도 했다.

54년만에 꿈에 그리던 북의 아들 리강백(71)씨를 만난 주애기(95) 할머니는 "열여덟 살 때 결혼해 5년만에 낳은 아들이라 금이야 옥이야 길렀는데 아들이 그 때의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아마 북에 혼자 남아 외로워서 어릴 적의 기억을 곰곰이 되새긴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강백씨의 여동생 강숙씨는 "북에서 낳은 남매가 교사와 대학교수로 있는 등 단란한 가정을 이뤄 잘 살고 있다는 생각에 무척 기뻐다"고 말했다.

북측 리집(72)씨의 남측 누나 남숙씨와 매형 조두식씨 등은 10kg짜리 선물가방 세 개를 준비해왔으며, 또 김분순(74)씨의 남측 언니 분희씨와 조카들은 종류별로 2개씩 10여개의 라면과 비타민, 커피 등을 준비했다.

리수행씨의 동생 순덕씨 등은 대형 가방에 선물을 가득 담아 "북쪽 가족 상황을 모르는데다 뭘 준비해야 할지 몰라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많아졌다"고 말했다.

북의 오빠 정종균(74)씨를 만난 남의 여동생 순자(68)씨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한 오빠가 어제 만나서 북에 가서도 밤낮없이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 교수까지 지내고 역사책도 여러 권 쓴 오빠가 자랑스럽다"고 했다. 정씨는 옷가지와 약간의 현금, 전자계산기 등 전자제품을 준비했다.

탤런트 김무생(61)씨는 "북의 외삼촌을 처음 만난 어제 맘 편히 잘 잤다. 한시라도 외삼촌 얼굴을 더 보고 손을 더 잡고 싶을 뿐이다. 이번에 만난 북측 가족과 최소한 전화 통화라도 할 수 있도록 해 1년에 한 두 차례라도 안부를 물을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씨는 선물로 양말, 신발, 바지 등은 물론 눈이 많이 오는 북측의 특성을 감안해 눈길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밑창이 두꺼운 방한화까지 챙기는 꼼꼼함을 보였다.

북의 누나 조인숙(79)씨를 만난 덕행씨는 "누나가 북 체제의 우월성에 대해 오랜 시간 이야기하는 바람에 같이 간 큰 누나(조옥,84)가 얘기도 듣지 않고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등 상봉이 좀 어색했다. 이런 상황을 각오했지만 앞으로 정치적인 색깔을 배제했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워했다.

북측 남동생 안남룡(72)씨를 만난 남희(80) 할머니는 "죽은 줄 알고 있었던 동생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며 전날에 이어 이날 개별상봉과 참관상봉, 동석식사 등 여섯 시간 남짓한 만남이 이어지는 것을 즐거워했다.

북측 오빠 김두찬(73)씨를 만난 미자(59)씨는 "50여년만에 오빠를 만난 것은 참으로 좋은데, 생각보다 야윈 모습이어서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미자씨 가족은 선물가방을 묶을 '새끼줄'을 방에서 꼬면서 "금강산으로 오기 직전 속초에서 가방을 하나 샀는데 너무 커서 오빠가 들고가기 힘들 것 같다"며 걱정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남측 가족들은 "선물이 세 바구니, 네 바구니 되는데 이걸 다 북측 집까지 배달해 주느냐", "이 선물도 북측 당국의 검열을 받느냐", "고급시계를 쥐도 문제가 안되느냐"고 북측 가족들에게 선물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를 걱정했다.

한편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준비한 선물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끝)

〈금강산상봉〉 ‘고향의 봄’ 부르며 점심식사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남북 이산가족들은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북측이 운영하는 김정숙휴양소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북측 가족 100명은 1층과 2층 식당에 나뉘어 남측 상봉단을 기다렸으며, 식탁에는 신덕쌈물, 룡성맥주, 대평곡주, 안풍포도술, 룡성배사이다, 오징어무침, 생선튀김, 떡, 복숭아, 물 등이 준비됐다.

북측 가족들은 남측 가족들이 비로 인해 입장이 늦어지자 하나 둘씩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며 애타게 기다렸으며 자신의 가족이 입장하면서 두리번 거리자 "여기가 여기"라며 손을 흔들기도 했다.

남북 가족들은 이틀간의 만남에서 여유가 생긴 듯 비교적 자연스러워 보였다.

이들은 테이블에 앉자마자 술부터 돌리면서 "오빠의 건강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를 외치며 건배를 했고 오찬 내내 "위하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일부는 박수를 치면서 '고향의 봄' 등의 노래를 부르며 어린시절로 돌아간 듯 즐거워했다.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식탁에 앉은 뒤 북측의 요리를 둘러보다 대평곡주와 포도술, 룡성맥주를 한 잔씩 맛을 보기도 했다.

문 수석은 50여년만에 처음 만난 북의 이모 강병옥씨와 어느새 친해진 듯 "여기에 묵고 계시느냐"고 물었고, 병옥씨는 문 수석의 부인인 조카 며느리 김정숙씨에게 음식을 건네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앞서 문 수석 가족은 오전 개별상봉 때 어머니 강한옥씨와 병옥씨 자매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30여분간 자리를 피해주기도 했다.

상봉 번호 1번인 북측의 림승호씨는 2층의 맨 구석에 자리가 마련돼 있어 남측의 어머니 노복금씨가 휠체어로 오는 데 시간이 걸리자 일어서서 어머니를 기다렸다.

림씨는 어머니가 식탁으로 다가오자 못다한 효도를 하려는 듯 어머니를 번쩍 안아 자리에 앉혀 드린 후 술을 한 잔 올리기도 했다.

셋째 동생 승태씨가 "형님 덕분에 이렇게 먹게된다"고 하자, 승호씨는 "우리 삼형제가 모여 술자리도 하게 돼 정말 기쁘다. 10년만 더 살면 다시 만나자. 나도 우리 아버지 만큼 오래 살고 싶다"고 답했다.

전남 강진 출신으로 북한에서 전기 기술자로 일해온 황봉연씨는 남측의 동생들에게 포도술을 따른 뒤 "통일을 위해서"라며 건배를 제의하자 둘째 동생 봉임씨가 "큰 오빠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화답했다.

주애기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 자리를 잡자 북의 아들 리강백씨는 냅킨을 무릎에 올려 주면서 "먼저 드시라"고 했고, 남쪽의 동생 강훈씨가 "어머니, 아들에게 하나 먹여주세요"라고 하자 주 할머니는 냅킨으로 젓가락을 깨끗이 닦아 숙떡을 집어 북의 아들의 입에 넣어주기도 했다.

강백씨는 "지난 54년동안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게 기적같다. 그 때 나는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 내 힘으로 표현을 못하겠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북측의 오빠 박경재씨를 만난 옥재씨는 상에 차려진 음식을 오빠 입에 직접 넣어주면서 "얼른 많이 드시라"며 "북한 음식이 너무 맛있고 입맛에 맞다. 그러나 상에 나온 포도주는 도수가 너무 센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측의 정종균씨는 남측 여동생들과 포도주를 나누며 "술맛 참 좋다"고 연방 즐거운 미소를 지으면서도 여동생 호진씨가 개별상봉 직후 몸이 불편해 해금강호텔의 무실에 남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듣자 동생이 걱정되는 듯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두 시간 남짓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눈 뒤 비가 내리는 바람에 삼일포 관광을 취소하고, 오후 4시부터 평양교예단의 교예공연을 관람했다.

(끝)

-금강산상봉-빛속서도 즐거운 상봉(종합)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중인 남측 상봉단 471명은 상봉 이틀째인 12일 현대아산이 운영하는 해금강호텔 객실에서 북측 가족들과 개별상봉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전날 단체상봉 등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새벽부터 굵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북측 가족들은 예정보다 30분 가량 빠른 오전 9시30분 해금강호텔에 도착, 각각 남측 가족들이 대기하고 있는 객실로 올라가 낮 12시까지 두 시간 남짓 혈육의 정을 재확인했다.

남북 가족들은 금반지, 의류, 생필품, 화장품 등 남측 가족이 가져온 선물 보따리 등을 풀어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북측 천길봉씨의 남측 동생인 원덕(70), 길성(68), 길례(65), 근철(56)씨 가족은 길봉씨가 도착하기 전, 객실에 약식 제사상을 차려놓고 "오늘이 아버지 제삿날이라 큰 형님이 오시면 함께 제사를 지내려 한다. 아버지가 형님 절을 받으시려고 이날 돌아가셨나 보다"고 말했다.

이병기씨의 큰 고모 이희갑씨는 개별상봉을 앞두고 "동생이랑 하룻밤 같이 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똑같은 색깔의 잠옷을 두 벌 챙겨왔는데 입지 못하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이희갑씨는 "분홍 저고리에 남치마의 한복 두 벌을 갖고 왔는데 동생과 입고 사진을 함께 찍고 싶다"고 말했다.

탤런트 김무생씨는 개별상봉 직전 "어젯밤 잘 잤다. 한시라도 (외삼촌) 얼굴을 더 보고 손을 더 잡고 싶을 뿐이다. 이번에 만난 북측 가족들과 최소한 전화라도 통화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산가족들은 북측의 김정숙휴양소에서 혈육의 정을 느끼며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식탁에 앉은 뒤 북측의 요리를 둘러보다 대평극주와 포도술, 룡성맥주를 한 잔씩 마시기도 했다.

문 수석은 50여년만에 처음 만난 북의 이모 강병옥씨와 어느새 친해진 듯 "여기에 묵고 계시느냐"고 물었고, 병옥씨는 문 수석의 부인인 조카 며느리 김정숙씨에게 음식을 건네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앞서 문 수석 가족은 오전 개별상봉 때 어머니 강한옥씨와 병옥씨 자매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30여분간 자리를 피해주기도 했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우천으로 인해 당초 예정됐던 삼일포 관광을 취소하고 평양교예단의 교예(서커스) 공연을 관람한 뒤 이날 일정을 마무리지었다.

(끝)

-금강산상봉- '친구'가 '친척'으로 속여 상봉(종합2보)

北 재발방지 요구에 南 유감표명 문서 전달

일정 예정대로 진행..빚속서도 즐거운 재회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중인 남측의 한 참가자가 자신이 북측 이산가족의 친척이라고 속여 상봉한 사실이 12일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당초 이번 상봉과정에서 북측 안남룡씨의 남측 '외사촌'이라고 관계를 밝혔던 A씨가 안씨의 소꿉친구인 사실이 드러나 남측이 해명하는 일이 벌어진 것.

11일 단체상봉 과정에서 안씨와 A씨가 북측 관계자에게 '친구'라고 말해 북측은 같은 날 밤 늦게 남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해왔다.

남측은 안씨의 남측 가족과 A씨로부터 "어릴 때 헤어진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다"는 해명을 듣고는 "상봉단 구성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가족, 친척이 아닌 사람이 포함됐다"며 북측에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이 12일 보다 더 확실한 재발방지를 요구, 남측은 '가족과 친척이 아닌 사람이 포함된 데 대해 유감이다. 앞으로 상호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회보서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철저히 하자'는 요지의 문서를 북측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족, 친척이 아님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날 개별상봉과 공동오찬, 교예공연 관람 등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혼자 해금강호텔에 체류했으며 13일 작별상봉에도 참가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양측은 그러나 이 사안이 이산가족 상봉행사 자체에 영향을 주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상봉행사 이틀째인 이날 금강산에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장대비가 내리는 등 곳은 날씨 속에서도 남북 이산가족들은 개별상봉과 공동중식, 교예(서커스) 공연 관람 등으로 6시간 정도를 함께 보냈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이날 오전 현대아산이 운영하는 해금강호텔 객실에서 두 시간 남짓 개별상봉을 갖고 전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다.

남북 가족들은 금반지, 의류, 생필품, 화장품 등 남측 가족이 가져온 선물 보따리 등을 풀어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북측 천길봉씨의 남측 동생인 원덕(70), 길성(68), 길례(65), 근철(56)씨 가족은 길봉씨가 도착하기 전, 객실에 약식 제사상을 차려놓고 "오늘이 아버지 제삿날이라 큰 형님이 오시면 함께 제사를 지내려 한다. 아버지가 형님 절을 받으시려고 이날 돌아가셨나 보다"고 말했다.

이병기씨의 큰 고모 이희갑씨는 개별상봉을 앞두고 "동생이랑 하룻밤 같이 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똑같은 색깔의 잠옷을 두 벌 챙겨왔는데 입지 못하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이희갑씨는 "분흥 저고리에 남치마의 한복 두 벌을 갖고 왔는데 동생과 입고 사진을 함께 찍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숙휴양소에서 열린 공동오찬에서 남북 가족들은 이틀간의 만남으로 비교적 여유가 생긴 듯 자연스러워 보였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건강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등 구호를 외치면서 건배했고, 박수와 함께 '아리랑', '고향의 봄' 등을 합창하기도 했다.

북측의 정종균씨는 남측 여동생들과 포도주를 나누며 "술맛 참 좋다"고 연방 즐거운 미소를 지으면서도 여동생 호진씨가 개별상봉 직후 몸이 불편해 해금강호텔의 무실에 남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는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다.

교예공연이 끝난 뒤 남북 이산가족들은 각각 온정각과 김정숙휴양소에서 별도로 저녁식사를 했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13일 오전 한 시간동안 작별상봉을 끝으로 50여년만의 만남을 뒤로한 채 또다시 기약없는 이별을 하게 된다.

(끝)

북, 10차 이산가족 상봉 보도

(서울=연합뉴스) 정연식 기자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1~12일 금강산에서 이뤄진 제1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소식을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지난 11일 단체 상봉에 이어 12일 가족 단위 상봉이 있었다며 "상봉이 시작되자 북과 남의 가족, 친척들은 기쁨에 겨워 서로 얼싸 안았다"고 전했다.

공화국영웅 안남룡씨, 김동신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수, 리순덕 인민대학습당 연구사 등 북측 인사들은 남측 가족, 친척들을 만나 북한에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 꽃을 피웠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이날 대한적십자사가 이산가족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다고 덧붙였다.

jys@yna.co.kr

(끝)

-금강산산봉- 작별상봉... 또다시 이별

2차상봉단 149명 속초 집결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10차 이산가족상봉행사에 참가 중인 남측 1차 상봉단 471명은 13일 오전 작별상봉을 마지막으로 2박3일간 금강산 상봉일정을 끝내고 반세기동안 사무쳤던 그리움을 뒤로한 채 북쪽땅을 떠난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동안 온정각 휴게소 앞마당에서 북측 가족 100명과 작별상봉을 가진 뒤 오후 1시 숙소인 해금강호텔을 떠나 오후 4시 남측 지역인 속초 대명콘도로 귀환한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기약없는 이별이 아쉬운 듯 마지막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지난 11일 방북한 남측 가족들은 개별 및 단체상봉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북측 가족들과 해후하며 혈육의 정을 나눴다.

한편 1차 상봉단 귀환과 동시에 14일부터 2박3일간 같은 지역에서 열리는 상봉행사에 참가할 동반가족 49명을 포함한 149명의 2차 상봉단은 이날 오후 속초 대명콘도에 집결, 간단한 안내교육을 받는다.

이들은 속초에서 하루 숙박한 뒤 14일 오전 9시 금강산으로 출발하며, 16일 귀환할 예정이다.

(끝)

-금강산 상봉- 작별상봉... '짧은 만남 긴 이별'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남측 이산가족 471명은 13일 오전 작별상봉을 마치고, 기약없는 이별에 울음을 삼켰다.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온정각에서 열린 작별상봉에서 남쪽의 어머니 로복금(95)씨를 만난 북쪽의 아들 림승호(73)씨는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종이 앞뒤 면에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은 편지 한통을 건넸다.

승호씨는 봉투에 '아버지와 만나지 못한 동생들에게'라고 쓴 뒤 "아버지를 드리려고 편지를 썼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썼지. 아버지 생각에 잠이 안 와"라며 눈물을 흘렸다.

남동생 승봉(69)씨는 상봉 중에 찍은 사진들을 건네며 "그저께 찍은 사진이야, 형 잘 나왔지"라고 말하자, 승호씨는 "우리 3형제 다 잘 나왔네. 이 사진 내가 가져도 되지. 다시 만날 때 좋게"라며 사진을 놓지 않았다.

또 북측의 아버지 윤병철(80)씨를 만난 남쪽의 딸 순원(54)씨는 "아버지 건강하세요. 담배피우지 마시고 통일되면 다시 만나요"라고 말하자, 아버지 윤씨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노환으로 오지 못한) 어머니를 잘 모시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분희(82) 할머니는 "언제 다시 만나겠냐"며 북의 동생 분순(74)씨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김 할머니는 작별상봉을 앞두고 "살아있다는 것 확인한 것은 기쁘고 다시 못 볼 생각하니 슬프다"며 "일회일비"라고 담담하게 말하다 끝내 흐느껴 울었다. 그러자 동생 분순씨는 "통일이 돼야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때까지 꼭 살아 있어야 돼"라며 고령의 언니를 달랬다.

남측의 동생을 만난 북측 황봉연(76)씨는 "이제 헤어지면 언제 만나냐"라고 아쉬움을 전하자 동생 정연(58)씨는 "형님 이제 곧 철도도 도로도 연결됩니다. 곧 만날 수 있습니다"라며 희망을 전하기도 했다.

어릴 적 8남매가 모두 생존해 화제가 됐던 박영돈(56)씨 가족도 처음에 어색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작별상봉장에서 화기애애하게 정담을 나눴다.

8남매 중 북측의 박영돈(71)씨는 "이제 헤어진다니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지만 힘을 합쳐 통일을 이뤄 꼭 함께 다시 만나자"고 힘주어 말했다.

탤런트 김무생씨의 북측 외삼촌 장경수씨는 "우리 울지 말고 헤어지자"라고 말하면서도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김무생씨는 "외삼촌 건강하세요"라고 말하고는 목이 메는 듯 더 이상을 말을 잇지 못했다.

북측의 동생 리순덕씨를 만난 이희갑씨는 "앞으로 편지교환 등을 통해 계속 연락하자"며 석별의 아쉬움을 전했다.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너무 짧다. 헤어진 뒤라도 편지를 교환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이라고 말꼬리를 흐린 뒤 "앞으로 점점 더 열릴 겁니다"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상봉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너무 아쉽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만난 분들이 계속 서신교환 등을 할 수 있도록 남북간 당국 차원에서 협의가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수석의 어머니 강한옥씨는 "아버지 어머니 모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노인네들 모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냐.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동생 병욱씨의 손을 꼭 잡고 놓지 못했다.

작별 상봉을 가진 남측 이산가족 방문 1진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작별상봉을 한 뒤 숙소인 해금강호텔로 이동해 오후 1시 버스편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환할 예정이다.

(끝)

〈금강산상봉〉 54년만에 소꿉친구 만난 조동제씨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북한의 '소꿉친구'를 만나기 위해 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여한 조동제(71)씨는 북측의 항의로 친구 안남룡씨를 한차례 밖에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며 13일 오후 금강산을 떠나 남측으로 돌아왔다.

조씨는 "북측의 친구 안남룡은 동갑내기고 고향인 충청남도 당진 남산리에서 어릴 적 함께 소를 울고 산으로 들로 풀베려 다니던 소꿉친구였다"며 "웬만한 친척이나 가족들보다 내가 더 친했고 헤어진 가족들보다 내가 얼굴도 잘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룡이의 가족에게서 아직 북측에 살아 있다는 연락을 받고는 눈물이 나오도록 기뻐했다"며 "마침 상봉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4명 밖에 안된다고 해서 나도 끼었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에는 가족당 5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외사촌'으로 행사에 참석한 조씨는 지난 11일 저녁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에서 열린 첫 단체상봉을 통해 그리던 친구 안씨를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안씨가 "소꿉동무를 50여년만에 다시 만났다"고 말하는 바람에 북측에서 "가족이 아닌 친구가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남북당국간 합의위반"이라고 항의, 12~13일 상봉행사에는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

안씨의 남측 가족들은 "사실 어릴 적 헤어진 우리보다 조씨가 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에 친구는 참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남측의 이산가족 상봉지원단은 북측에 이런 사실을 설명하고 재발방지를 서면으로 약속했다.

조씨는 "54년만에 만난 친구가 어찌나 반가웠는지, 옛 생각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한차례 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만족한다"며 "다른 이산가족들에게 폐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미안해했다.

남측으로 떠나는 버스에 오르기 직전 조씨는 "사실 나를 낳고 돌아가신 생모가 안씨여서 남룡이와 나는 외가 쪽으로 친척인 게 맞다. 이렇게 항의를 받고 시끄럽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오지 말았을 것을..."이라며 아직도 민감하고 까다로운 남북 관계를 아쉬워하기도 했다.

(끝)

-금강산상봉- 상봉2진 내일 금강산행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 2진(단장 차주원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장)이 14일 오전 동해선 육로를 통해 금강산으로 떠난다.

동반가족 49명을 포함한 남측 이산가족 149명은 출발 하루 전인 13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설악대명콘도에 모여 방북교육을 받았다.

상봉단 중 최고령으로 북측의 둘째아들 김창원(68)씨 부부와 손자 등을 만나기 위해 제주도에서 올라온 허유정(97) 할머니는 이날 "어미를 놔두고 가다니 만나면 가만히 안 두겠다"면서도 "뛰는 심장을 어쩔 수 없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허 할머니는 아들이 19세 되던 지난 56년 일본으로 건너간 뒤 59년 북한행 만경봉호를 탄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전쟁 중에 북측의 부인 이후봉(79)씨와 헤어지게 된 전성오(80)씨는 "새색시를 놔두고 나만 남쪽으로 내려와 호강하면서 살아온 죄를 지었다"며 "나를 만나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고 만나면 살아있어 고맙다고 칭찬해 주고싶다"고 말했다.

1.4후퇴 당시 부인과 아들, 누이동생 박순전(69)씨와 생이별을 하게 된 박원동(74)씨는 "비록 아내는 죽었지만 아들을 만날 수 있어 기쁨을 감출 수 없다"며 "죽은 처가 북한에서 둘째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 아들도 이번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아들 강관식(55)씨와 동생 강상용(56)씨를 한꺼번에 만나는 강은용(76) 할아버지는 "한 살배기 동생과 아들을 두고 왔는데 누가 동생이고 아들인지 구분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둘 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다"고 울먹였다.

남측 상봉단은 14일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버스 14대에 나눠 타고 오전 11시3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동해선 육로를 이용해 오후 1시께 금강산 해금강호텔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4시부터 두 시간 동안 김정숙휴양소에서 단체상봉을 가진 데 이어 오후 7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환영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꿈만 같은 2박3일간의 상봉일정을 모두 마치고 속초로 귀환한 이산상봉단 1진(단장 이세웅 한적 부총재) 가운데 북측 장기복(71)씨의 남측 사촌여동생인 남상순(66)씨가 지병인 당뇨가 악화돼 구급차를 타고 남측 속초의료원으로 후송됐다.

(끝)

-금강산상봉- 반세기만에 혈육 만난다

(고성=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 2진(단장 차주원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장) 149명이 14일 오전 금강산으로 출발, 2박3일간의 상봉일정에 들어간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관광버스 14대에 나눠 타고 오전 11시3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동해선 육로를 이용해 오후 1시께 금강산 해금강호텔에 도착할 예정이다.

상봉단 중 최고령자인 남측의 허유정(97) 할머니를 비롯한 남북 이산가족들은 오후 3시 단체상봉에 이어 오후 7시 북측 주최의 환영만찬을 통해 반세기 만에 혈육의 정을 나누게 된다.

이틀째인 15일에는 오전 개별상봉과 공동중식에 이어 오후에는 삼일포 관광이 이뤄진다. 우천시에는 관광 대신에 교예(서커스)를 관람한다.

마지막날인 16일 남측 이산가족들은 작별상봉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후 1시 북측 땅을 떠남으로써 기약없는 이별을 하게 된다.

한편 동반가족 49명을 포함한 남측 이산가족 149명은 13일 오후 강원도 고성 설악대명콘도에 모여 간단한 안내교육을 받았다.

(끝)

-금강산상봉- '50여년만의 눈물' 첫 상봉

남측 149명, 북측가족 239명 재회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제10차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2진 상봉행사가 14일 북한 금강산에서 열렸다.

지난 11일부터 북측 100명을 남측 471명이 만난 1진 행사에 이어 이날부터 치러지는 상봉행사에서는 남측 100명과 동반가족 49명이 북측에서 온 가족 237명을 만났다.

오후 4시부터 김정숙휴양소에서 이뤄진 단체상봉에는 남측 황인규(95).김정원(90)씨 부부가 50년전 북한에 두고온 딸 신렬(60).의렬(57)씨를 만났다.

어머니 김씨는 "당시 젖먹이를 포함해 다섯 아이가 있었는데 모두 데리고 피난나올 수 없게되자 9살 난 신렬이가 의렬이를 데리고 남겠다고 해 두고 왔다"고 말했다.

상봉에서는 또 최고령자인 허유정(97.여)씨가 일본에서 북송선인 만경봉호를 타고 59년 북한에 들어간 아들 황원(67)씨와 며느리,손자를 만났다.

북한은 이번 상봉에서 남북자와 국군포로 각 한 가족의 상봉을 허용했으나 68년 7월 납북된 어부 박종임씨의 경우, 숨졌다고 알려와 어머니 윤영자(73.여)씨는 북한의 여동생 선희(69)씨를 대신 만났다.

또 국군포로 유상재(81)씨는 북측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와 남측에 사는 아내 부김봉희(80)씨는 조카 김영환(44)씨 등을 만나야 했다.

상봉 가족들은 북측이 주최한 환영만찬을 함께 했으며 15일에는 남측 숙소인 해금강호텔에서 가족별 개별상봉을 한 뒤 오후 삼일포를 관광할 예정이다.

(끝)

<금강산상봉> '두차례 이산' 아픔을 어쩔거나

남북어부 老母, 죽은 아들 대신 동생 만나 통곡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나는 오늘 동생을 만나러 왔다. 선희(선자) 너를 만나러 왔다"

1968년 열다섯의 나이로 납북된 맏아들 박종임(50)씨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통보를 받고 10차 이산상봉에 참가한 운영자(73) 할머니는 14일 단체상봉에서 아들 얘기를 꺼내기를 주저했다.

반세기 만에 만난 여동생 선희씨를 상대로 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묻고 싶었지만 일단은 참는 표정이었다.

개별상봉 등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는 만큼 차근차근 물어보는 게 낫다고 생각한 때문이라고 상봉장에 동행한 둘째아들 민천씨는 설명했다.

대신 윤 할머니는 동생 선희씨를 상대로 두 번이나 이산가족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기구한 운명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윤 할머니는 상봉장에 들어서자마자 선희씨를 끌어안은 채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죄가 많다. 혼자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심정이다. 어떻게 다 만날꼬"라며 목놓아 통곡했다. 선희씨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윤 할머니의 운명은 기구했다. 윤 할머니는 광복 직후 황해도 평산군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잠시 서울로 온 사이에 6.25전쟁이 터지면서 가족들과 영영 이별했다.

부산까지 내려가게 된 윤 할머니는 부산 육군병원에서 일하던 중 결혼을 해 아들 종임씨를 낳았다. 하지만 남편이 하던 일마다 실패하면서 강원도 고성까지 가 남편이 고기잡이 배를 타는 것으로 연명하게 된다. 아들 종임씨 역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배를 탔다.

운명의 1968년 7월.

가덕호를 타고 출항한 종임씨가 납북되면서 윤 할머니는 두 번 이산가족이 되는 비운을 맞았다. 납북선원 중 일부는 귀환했으나 종임씨 등 4명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공부도 시켜주고 한다니 종임이가 좋아하더라"는 귀환 선원의 전언이 마지막 소식이었다.

이후 윤 할머니의 인생은 '기약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납북자가족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아들과 상봉을 기다려온 끝에 10차 상봉단 예비후보에 포함돼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게 되는 행운을 얻었으나 '사망'이란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

윤 할머니는 단체상봉 직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사람들은 만나던데 내 아들은 '사망'이란 게 무슨 말이냐. 두만강 물이 마르고 한강물이 말라도 내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그런데 죽었다니 그걸 믿으란 말이냐"며 오열했다.

둘째 아들 민천씨는 "그냥 죽었다고만 하면 다냐"고 허탈해 했다.

(끝)

〈금강산상봉〉 북의 두 딸 만난 90대 노부부

1.4후퇴때 두딸만 남기고 남으로 피난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미안하다. 너희들만 두고 내려가서 이렇게 고생을 시켰구나"

14일 금강산 김정숙휴양소 단체상봉장.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석한 남측 김정원(90) 할머니는 북쪽의 두 딸 황신열(60), 희열(57)씨 자매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김 할머니가 남편 황인규(96)씨와 함께 고향인 함경남도 함흥을 떠난 것은 1951년 1.4후퇴때. 5남매를 데리고 부두에 나갔지만 모두 배에 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둘째, 넷째딸인 신열,희열씨만 북쪽에 남게 됐다.

당시 9세였던 신열씨가 동생을 데리고 있겠다고 했고 김씨는 "한달만 있다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김씨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결국 50여년을 생사도 모른 채 살아야 했다.

상봉장에서 두 딸을 다시 만난 김씨는 "이분들 우리 가족 맞습니까"라고 첫 마디를 꺼냈다. 50년 세월이 흐르면서 어린 딸이 노년의 할머니로 변한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김씨는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했다.

김씨는 두 딸의 손을 부여잡고 "미안하다"는 말만 거듭하며 통곡을 했다.

딸 희열씨는 처음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버리고 갔지만.."이라며 원망을 드러냈지만 이내 "정말 보고싶었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또 "이 기쁜 날 울지 마세요"라며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

딸 신열씨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식 사진과 아버지의 총각시절 흑백사진도 챙겨왔다. 신열씨는 "아버지 어머니 생각날 때 마다 사진을 꺼내 보며 그리워했다"고 말했다.

아버지 황인규씨는 "우리는 이제 여한이 없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지은 죄를 어떻게 씻겠느냐만 이렇게 만났으니 됐다"고 말하며 두 딸의 손을 꼭 붙잡았다.

(끝)

〈금강산상봉〉 북 아내. 자녀 만난 김경필씨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혼자 애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내가 죄인이오"

북한 금강산 지역에서 열린 제10차 이산상봉 행사에서 54년만에 북쪽의 아내 강채금씨(86)와 아들 영도(59), 딸 정순(63), 숙녀(58), 옥희(53)씨를 한꺼번에 만난 김경필씨(82).

그는 재회의 기쁨보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 탓인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김씨는 1950년 국군이 후퇴할 때 가족을 두고 혼자 남쪽으로 피신했다. 그는 아내와 아들. 딸들을 끌어 안고 "6개월이면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흘렀다"며 한숨을 길게 토해냈다.

헤어질 당시 5살로 이제 백발이 희끗희끗한 노인이 된 영도씨는 아버지 김씨의 손을 잡고 "아버지, 왜 이제 오셨나요"라며 호느꼈다.

김씨는 아들. 딸을 끌어 안고 "아버지도 없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큰 딸 경순씨는 "이렇게 좋은 날 왜 눈물을 보이세요. 울지 마세요"라며 손수건을 꺼내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줬다.

아버지 김씨는 "어머니 혼자 너희를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였을 텐데, 잘 모셨느냐"고 물었고,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아내 강씨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아무런 말도 못했다. 김씨는 아내에게 목걸이 하나를 건네며 "재가도 않고 이렇게 살아온 당신을 보니 고마우면서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들 영도씨도 "어머니가 조부모까지 모시느라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거들었다. 영도씨는 54년간 간직해 온 아버지의 흑백 증명사진을 꺼내 보이자 아버지 김씨도 남측 가족 사진을 건넸다. 아내 강씨는 "남측에 아들은 없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여기 아들이 있지 않느냐"며 영도씨의 어깨를 감싸안았다.

김씨는 남측에서 재혼해 딸 셋을 두고 있다.

상봉행사에 아버지와 동행한 막내 딸 민진씨(23)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얼떨떨하다"면서도 금세 어머니 같은 북측 언니들 틈에 끼어 앉아 이야기 꽃을 피웠다.

김씨는 18살 때 4살 연상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6.25 전쟁 전까지 함경북도 성진 시청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남측에 내려와 막노동으로 연명하다 우연히 사교 댄스를 접한 뒤 그 길로 들어섰다. 1954년 제1회 댄스선수권대회를 여는 등 스포츠 댄스 보급에 앞장섰고 지금도 한국 댄스스포츠교육협회 부산시 지부장을 맡고 있다.

(끝)

〈금강산상봉〉 이산상봉 이모저모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0...14일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열린 단체상봉은 당초 오후 3시로 예정됐으나 북측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한 시간 미뤘다.

0... 상봉행사는 남측 단장인 차주원 대한적십자사(한적) 총복지사 회장과 이종철 한적 남북교류위원장 등 남측 상봉단 일행이 10분 전 김정숙 휴양소에 도착하면서 시작됐다.

북측 단장인 최성익 조선적십자회 상무위원은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내리던 비가 멎어 행사가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라며 남측 관계자를 안내했다.

북측은 휴양소 입구에 한복 차림의 여성 안내원 20명을 배치했고 이들은 이산가족들에게 일일이 "반갑습니다"라며 인사를 했다.

0... 1,2층 로비 등에 5곳의 상봉장을 만든 북측은 100개의 테이블 위에 아달산 샘물과 룡성 딸기 단물, 대동강 소주를 준비했고, 말린 바나나와 아몬드를 안주로 제공했다.

'반갑습니다'라는 북한 가요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북측 가족들은 미리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행사장에 들어온 남측 가족들이 남북 지원 요원들의 안내를 받아 서로 신상을 확인한 뒤 본격적인 상봉을 했다.

남측의 최수려(89) 할머니는 북측 동생 순녀(79)씨를 만난 뒤 한동안 어색한 눈길을 보내며 쳐다보기만 했으나 북측 가족인 조카 한철(42)씨가 "제가 수종이 셋째 아들입니다"라고 인사, 자매관계임이 확인되자 드디어 눈물을 흘렸다.

0... 25번 테이블에 앉은 민춘희(73.여)씨는 동생 순녀(63), 복녀(56)씨와 만나 순녀씨를 가리키며 "내가 뭘 잘못하면 내가 부모님께 다 일러바쳐 내가 널 쥐어박으며 떨어져 살자고 했는데 진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라며 "진짜 꿈인가 생시인가 한다. 통일될 때까지 오래 살자"고 말했다.

동생 순녀씨는 "언니 어디 갔었어. 내가 언니 따라 다니며 성가시게했는데"라며 울먹이기도.

0...북한의 여동생 3명을 만난 이우근(81).봉근(75)씨 형제는 상당히 밝은 표정으로 상봉을 해 눈길을 끌었다.

동생 경옥(79), 주옥(69)씨 등은 꼬깃꼬깃한 어릴 적 흑백사진을 들고 나와 "오빠 사진이다. 모습이 너무 변해 못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주옥씨는 부모님 사진을 들고 "엄마가 오빠들과 헤어진 다음부터는 밥 먹을 때마다 밥 한 그릇을 따로 떠놓았다가 다 식으면 그 밥을 꼭 엄마가 먹으며 오빠를 생각하곤 했다"고 말했다.

(끝)

-금강산상봉- “‘이산문제’ 미룰 수 없어”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1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석 중인 남측 상봉단 차주원 단장은 14일 "이산가족 문제는 어떤 명분이나 이유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차 단장은 이날 오후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열린 10차 이산가족 환영만찬에서 담사를 통해 이 같이 강조하면서 "남북 적십자사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하루라도 빨리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측 최성익 단장은 만찬연설에서 "이번 상봉은 6.15 북남공동선언이 가져다 준 결실"이라며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흠어진 가족과 친척간 상봉을 통해 온 겨레는 북과 남이 손잡고 힘을 합쳐 나갈 때 조국 통일도 앞당겨올 수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끝)

-금강산상봉- 애뜻한 이틀째 만남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남북 이산가족들은 15일 금강산에서 개별상봉과 공동중식, 삼일포 관광 등을 통해 애뜻한 혈육 재회의 정을 나눌 예정이다.

제1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 중인 남측 가족 149명은 행사 이틀째인 이날 오전 10시부터 해금강호텔 내 숙소에서 북측 가족 237명과 개별상봉을 갖고 선물을 주고 받는 등 50여년만에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함께 한다.

남북 양측은 가족들만의 시간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 개별상봉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 이산가족은 개별상봉에 이어 오후 1시부터 김정숙휴양소에서 2시간 동안 점심식사를 함께 한 뒤 오후 4시부터 2시간 가량 삼일포 관광에 나설 예정이다.

만약 비가 내릴 때는 실내 교예(서커스) 공연을 공동으로 관람하게 된다.

이어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온정각휴게소 앞마당에서 작별상봉을 통해 기약없는 이별 예식을 갖게 된다.

이에 앞서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은 14일 단체상봉과 공동만찬을 갖고 반세기만에 재회한 나머지 감격의 눈물을 흘렸으며, 상당수 가족들은 밤을 지새웠다.

(끝)

-금강산상봉- 해금강호텔서 개별상봉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제10차 이산가족 방문단 2진 상봉행사에 참여한 남측 이산가족 100명과 동반가족 49명(80세 이상 노약자의 보호자)은 15일 남측 숙소인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북측 가족 237명과 개별상봉을 가졌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치러진 개별상봉에서 가족들은 서로 준비해 온 사진첩과 보약, 금반지, 옷감, 술 등 선물을 교환했다.

또 전날 단체상봉과 공동만찬 때 미처 확인하지 못한 친지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주소를 건네받기도 했다.

특히 남측 상봉단 중 박선비(81) 할머니의 남동생 원동(73)씨는 북한에 두고온 두 아들 소식에 눈물을 흘렸다. 원동씨는 누님의 보호자로 방북했으나 북측에서 박 할머니의 조카 자격으로 나온 자신의 아들과 만났다.

원동씨의 아들 창모씨는 "아버님이 저를 어릴 적 두고 가셨고 월남하실 때 어머니가 임신 2개월 정도 된 동생을 두고 있어 동생의 존재는 모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한 가족은 당초 상일포를 참관할 예정이었으나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바람에 오후 4시30분부터 금강산문화회관에서 북한 교예단의 서커스를 보는 것으로 대체했다.

남측 가족은 이날 저녁 현대측 온정각휴게소 식당에서 북측과 따로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이다.

남북한 가족들은 16일 오전 북측 행사장인 김정숙휴양소에서 마지막으로 만남 뒤 다시 기약없는 이별을 하며, 남측 가족들은 동해선 육로를 이용해 돌아온다.

(끝)

-금강산상봉- “늦게나마 생일상 올립니다”

96세 정필순씨 감격..이틀째 만남 화기애애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어머니. 54년만에 불효 둘째 아들이 생일상을 올립니다"

제1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 2진 행사 이틀째인 15일 오후 상봉가족 공동중식이 이뤄진 금강산 김정숙휴양소.

한국전쟁 당시 의용군으로 입대해 생이별을 하게된 둘째 아들 리기섬(73)씨가 반세기 만에 상봉한 어머니 정필순(96) 할머니에게 처음으로 생일상을 올렸다.

정 할머니의 생일은 11월 24일이지만 반세기 동안 생일상을 차려드리지 못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아들 리씨의 요구로 이날 생일상이 앞당겨 차려지게 된 것.

리씨는 "어머니가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찾아줬으니 당연히 생일상을 차려드려야죠"라며 뒤늦은 생일상 마련에 감격해하며 정 할머니에게 인품술 한잔을 올렸다.

이어 이날 동석한 리씨의 부인이자 정 할머니의 며느리인 리영실(70)씨와 리씨의 아들 3형제가 "할머니 오래 사세요"라며 차례로 할머니에게 생일 축하술을 따라 올렸다.

정 할머니는 "감사하다. 정말 기분 좋다"며 아들과 손자의 손을 꼭 잡았고 리씨는 정 할머니에게 생일선물이라며 한복 옷감을 쥐어드렸다.

이날 생일상에는 50cm가 넘는 잉어와 송편, 싹떡, 송어, 파인애플 모양의 계란 요리, 소.돼지고기로 만든 오색요리 등이 차려졌고 상 한가운데는 꽃바구니가 준비되기도 했다.

남측 이산가족 100명과 동반가족 49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북측가족 237명과 자리를 함께 한 공동중식에서 '고향의 봄' 등을 부르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앞서 남북 가족들은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남측 숙소인 금강산 현대 해금강 호텔에서 개별상봉을 갖고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이들은 서로 준비해 온 사진첩과 보약, 금반지, 옷감, 술 등 선물을 교환하는 한편 전날 단체상봉과 공동만찬 때 미처 확인하지 못한 친지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주소를 주고받기도 했다.

특히 남측 상봉단 중 박선비(81) 할머니의 남동생 원동(73)씨는 북한에 두고온 두 아들 소식에 눈물을 흘렸다. 원동씨는 누님의 보호자로 방북했다가 북측에서 박 할머니의 조카 자격으로 나온 자신의 아들과 만난 것.

원동씨의 아들 창모(56)씨는 "아버님이 저를 어릴 적 두고 가셨고 월남하실 때 어머니가 임신 2개월 정도 된 동생을 두고 있어 동생의 존재는 모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동씨는 이날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에 자신의 모습을 담아 "동생 창환이에게 꼭 보여주라"며 아들에게 건네기도 했다.

한편 남측 윤영자(73) 할머니는 이날 개별상봉에서 지난 68년 납북돼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은 아들 박종임(당시 15세)씨의 소식을 자신의 여동생 선희(69)씨에게 캐물었으나 "알지 못한다"는 답변만을 들어야 했다.

남북한의 가족은 당초 삼일포를 함께 관람할 예정이었으나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바람에 오후 4시30분 금강산문화회관에서 평양 교예단의 서커스를 보는 것으로 대체했다.

이어 남측 가족들은 현대측 온정각휴게소에서 북측과 따로 저녁식사를 했다.

남북한 가족들은 16일 오전 북측 행사장인 김정숙휴양소에서 마지막 이별 상봉을 한 뒤 북측 가족들을 뒤로 한 채 동해선 육로를 이용해 남측으로 돌아간다.

(끝)

-금강산상봉- 만남은 잠시... 또 다시 긴 이별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10차 이산가족상봉행사에 참가 중인 남측 2차 상봉단 100명과 동반가족 49명은 16일 오전 작별만남을 끝으로 2박3일의 금강산 상봉일정을 끝내고 북쪽땅을 떠난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동안 김정숙휴양소에서 북측 가족 237명과 작별상봉을 가진 뒤 오후 1시 숙소인 해금강호텔을 떠나 오후 4시 남측 지역인 속초 대명콘도로 귀환할 예정이다.

대다수 남북 이산가족들은 기약없는 이별이 아쉬운 듯 마지막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이달 14일 방북한 남측 가족들은 개별 및 단체 상봉 방식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북측 가족들과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눴다.

1차 상봉단 471명은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같은 지역에서 북측 가족 100명을 만나 반세기 동안 헤어졌던 이산의 아픔을 달랬다.

한편 이번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북측이 김일성 사망 10주기 조문문제를 이유로 남북 해운실무접촉(7.13)을 연기하는 등 남북관계가 다소 냉각된 상황이었음에도 차질없이 치러졌다.

jyh@yna.co.kr

(끝)

-금강산상봉-'언제 또 만나나' 기약없는 이별(종합)

89세 오흥권씨 '앵블런스 작별'.이산면회소 시급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54년만에 만났는데 또 이렇게 작별하는구나"

북한 금강산 지역에서 열린 제10차 남북 이산가족 2진 상봉행사에 참가한 남측 가족 149명과 북측 237명이 16일 김정숙휴양소에서 마지막 상봉을 하고 눈물의 이별을 했다.

오전 9시부터 열린 '작별상봉'에서 남측의 가족들은 "54년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작별을 하는구나", "이렇게 헤어질 것을..."라고 울먹이며 북측 가족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옮겨야 했다.

북측에 두고 온 두 딸을 만난 남측의 황인규(95).김정원(90)씨 부부는 "50년만에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두고 갈 수 있겠느냐"며 딸 신열(60).의열(57)씨를 부둥켜안고 통곡했다.

신열씨는 "어머니 아버지, 통일되면 우리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더 오래오래 사세요"라며 눈물을 흘렸다.

또 남측 상봉단중 최고령자인 허유정(97) 할머니는 일본에서 북송선인 만경봉호를 타고 1959년 입북한 아들 창원(67)씨와 며느리, 손자의 손을 잡으며 "내가 이제 살아서는 너를 다시 못보지 않겠느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급작스런 질병악화로 15일 오후부터 상봉 일정에 참가하지 못했던 남측 오흥권(89)씨는 대한적십자사가 준비해온 구급차에서 북측의 조카 오현자(58).금선(65)씨를 상봉해야 했다.

남측의 누나 이서분(75) 할머니를 만난 북측의 동생 리범수(66)씨는 '늙으신 부모님을 잘 모시고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내용의 조카들에게 보내는 꼬깃꼬깃해진 편지를 누나에게 전해주며 손등으로 연신 눈물을 훔쳤다.

북측 동생 순녀씨를 만난 민춘희(73) 할머니는 동생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자 "55년 동안 헤어졌는데 뭘 그리 기다려. 통일이 되면 꼭 만나자"고 하자 상봉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던 동생도 "가슴이 터지는구나"라며 통곡했다.

김정숙휴양소 내부 상봉장에서 이뤄진 한 시간 동안의 만남 뒤 남측 상봉단이 탄 버스가 김정숙휴양소 앞마당을 돌아나가자 북측 가족들은 버스를 따라 달려나오며 손을 휘젓고 안타깝게 울부짖었다.

남측 가족들도 차창 밖으로 몸을 내밀어 북측 가족의 손을 잡으며 이별의 아픔을 주체하지 못했다.

차주원 한적 충북 지사 회장을 비롯한 남측 상봉단은 이날 낮 동해선 도로를 이

용해 군사분계선을 통과한 후 남측으로 귀환했다.

한편 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11일부터 사흘간 북측이 선발한 가족 100명을 남측 가족 471명이 만났으며, 14일부터 사흘간은 남측이 선발한 100명과 동반가족 49명(80세 이상 노약자 보호)이 북측가족 237명을 상봉했다.

북측이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 시비를 벌인 가운데서도 예정대로 치러진 상봉은 행사기간 이뤄진 우리 정부의 식량 40만t 지원계획 발표 등으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치러 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10차례의 상봉을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올 추석을 계기로 한 11차 상봉가능성 등 상봉정례화는 물론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등의 토대를 닦았다.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같은 해 8월 1차 상봉을 가진 이후 10여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는 남북한의 가족 9997명이 만났다. 또 납북자 11 가족과 국군포로 7 가족이 '특수이산가족'으로 분류돼 상봉했다.

한적 관계자는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에 상봉을 신청한 사람이 10만1천130명에 이른다"며 "북한과 합의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조속히 착공해 상봉을 확대하고 상설화하는 방안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제1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신문기사집

시 설

❖ 시 설 101

조문, 남북교류중단 사유안돼

북한이 남북교류와 대화를 중단하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미 민간단체 및 종교인의 방북을 갑작스럽게 취소했던 북한은 이제 남북 해운 실무접촉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북측은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고 문익환 목사의 부인 박용길 장로의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이 무산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의 이런 갑작스런 남북교류·대화 중단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남북은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갖고 있다. 이 차이를 상호 인정하지 않는다면 남북대화도 불가능하다. 북한에서 김주석의 존재와 김주석 10주기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클 것이다. 남한은 그런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과는 다른 관점에서 김주석이라는 존재 역시 남한에서 매우 특별하고 그만큼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남북은 서로 다른 정치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대를 교류 및 대화 상대로 인정한다면, 어느 한쪽의 정치문화를 다른 쪽에 강요하려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그동안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교류하고 대화할 것을 역설한 북한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일이다. 북한 내에서도 통할 수 있는 특수한 정치적 사정과 논리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남북교류·대화를 중단한다면, 안정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김주석 조문 문제는 남북관계 중단의 사유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내일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되어 있다. 이것마저 취소한다면 북한은 매우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남북교류 중단은 누구보다 북한에 이롭지 않다. 남북교류를 중단하면 대북지원도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좀더 이성적인 자세로 돌아가 하루 빨리 남북교류를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바란다.

**제1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신문기사집**

인 쇄 2004년 7월 31일
발 행 2004년 7월 31일

발행처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
(☎ 732-7950)

인쇄처 광 신 종 합 인 쇄
(☎ 2277-4533)
